백두산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43호 - 주체91(2002)년 5월 27일 (월) 백두산 편집부

이회창, 6.15공동선언 일부조항 폐기 망발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아시다시피 22일 이회창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6.15공동선언중 일부 조항을 폐기해야한다고 말해서 국민들을 크게 분격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먼저 이회창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것부터 얘기 됐으면 합니다.
윤정원 :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회창은 22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6.15공동선언중 일부를 폐기해야 한다는 그러한 망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선언의 2항의 내용을 보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예요. 그런데 이회창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처음에는 ≪이 조항은 그대로 갈 수 없다. 연합제와 연방제가 공통성을 갖는다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폐기≫를 뜻하느냐는 질문이 뒤따르자 이회창은 ≪그대로 가면 폐기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다가 그뒤 보좌진들로부터 쪽지를 건네받고는 ≪폐기해야 한다는 말은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횡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회창이 국민들의 항의가 두려워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폐기해야 한다는 말을 취소한다고 했지만 23일 저녁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 토론회에서는 다시 ≪6.15공동선언의 통일관련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건 결국 이회창의 공동선언의 이행을 폐기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보여준거라고 하겠죠.
사회자 : 이회창은 애당초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한 자이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나오자 그 매조항을 시비하면서 선언의 이행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랬죠. 이회창은 북에 가야 얻을 것이 없다며 남북정상회담을 반대를 했어요. 또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공동선언의 첫째조항에 대해 이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2항에 대해서는 이건 북측의 고려연방제를 승인한 것이라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납북자문제와 국군포로문제들을 거들며 반대를 했습니다.

남북간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활성시킬데 대한 사항도 시비를 했어요.
이렇게 이회창은 애당초 6.15공동선언 자체를 반대한 악질적인 반통일분자입니다.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 인류가 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면서 그것이 이행되어 한반도가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회창만은 공동선언을 처음부터 반대해오다가 대선을 앞두고는 더욱 공공연히 공동선언을 시비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6.15공동선언의 발표후 이회창의 언행을 주욱 살펴보면 이번 관훈클럽에서 한 ≪폐기≫발언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는 걸 잘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남측의 연방안은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국가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결국 고려연방제를 지향하는 만큼 두가지 방안이 공통적이라는 주장은 납득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같은 주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했거든요.
그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조항을 새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건 대권을 장악하면 ≪폐기≫하겠다는 소리나 같죠. 이건 결국 이회창이 6.15공동선언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윤정원 : 그렇죠. 이회창이 이북의 연방제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한사코 주장하고 있는데 근본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남과 북은 이념이 서로 다르고 체제도 달라요. 이로부터 자기의 이념과 체제를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하는 방도는 무엇이겠어요. 남북에 있는 이념과 체제를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기초위에서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가하는 연방제밖에 다른 통일방안이 없잖아요.
이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그래요. 남과 북에 있는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두 정부가 각기 지금처럼 정치, 군사, 외교권을 그대로 계속 행사하면서 연방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자는건데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방안입니까. 그래서 이북의 연방제를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 진보적 인류가 적극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회창은 한사코 이북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반통일적입니까.
사회자 : 말이 났으니까 밝혀야죠. 이회창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란 뭐겠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현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이북에까지 확대해서 한반도전체를 미국의 속지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중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북 민중이 그런 매국적인 자유민주주의통일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러니 이회창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란 결국 통일 안하겠다는 것이고 도저히 남과 북이 서로가 접수할 수 없고 외세의 지배하게 놓이게 하는 통일방안이 어떻게 당위성을 가질 수 있고 겨레의 찬성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체제통일을 주장하는 이회창이야말로 희세의 사대매국, 반통일역도가 분명합니다.
윤정원 : 그렇죠. 그런 반통일역도니까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한사코 반대하며 거기에 음으로 양으로 제동을 걸어왔죠. 비전향장기수들을 북송하는 차를 하수인들을 동원해 막아나선 것도 바로 이회창이였잖아요. 이북에 퍼만준다, 상호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앞장서 반대한 것도 이회창이죠. 중요한 통일작업의 하나인 금강산관광활동을 위한 사업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탕진한다고 반대한 것도 이회창입니다. 얼마나 심보가 고약한 민족반역자의 추악한 작태입니까. 그래서 지금 각계 국민들이 이회창을 단죄규탄하면서 대선후보사퇴와 정계에서 물러날 것을 그처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이회창이야말로 희세의 사대매국노, 반통일역도죠. 이자가 만약 집권을 하면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하고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세울 건 물론 정세가 격화돼서 전쟁이 터져 우리 겨레는 무서운 핵참화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민중이 어찌 이회창이 하는 반민족반통일적 언행에 대해 좌시묵과할 수 있고 그를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회창을 대선후보에서 사퇴시키고 정계에서 매장시키기 위한 반이회창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당면해서는 6.13지자제선거에서 이회창 패거리들이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하도록 한나라당후보낙선운동을 강력히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오는 12월 대선에서 이회창을 패배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전초석작업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4일~25일

2 종합
- 경찰 과잉진압은 한나라당 후원회 때문
- 통일연대, 6.15통일대축전성사 범민련한 총련이적규정철회 기자회견 및 농성
- 검찰, 칼기 사건 기록 일체 비공개 논란
- 효자

4 노작
-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2)

6 세기와 더불어
- 8장 7절 영생의 꽃(3)

8 칭송
- 장군형위인이 있어 강성사회주의가 있다
- 위인상 전하는 행사 세계 각지에서

9 노동신문
- 민족 통일염원 반영한 시대의 걸작(1)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반통일역적 이회창을 매장하자
- 미제는 극악한 침략자
- 또 하나의 문화적 재부가 마련되었다시며
- 일본의 핵무장화 책동 어디까지

13 투쟁보도
- 인권 짓밟는 공권력 앞에 우리는 하나
- 교육3주체 교육연대투쟁 선언하던날
- 대학로 달군 노동자들의 함성
- 용산미군기지되찾기 평화콘서트 열려

15 운동강좌
- 조미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1)

≪경찰 과잉진압은 한나라당 후원회 때문≫

통일연대 긴급 기자회견 가져

≪내 80 평생 조국통일운동을 하다 처음 당해보는 가당치 않은 일이다. 과연 대한민국 경찰인가 한심스런 생각이 든다.≫

25일 오전 11시 25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적 기자회견 탄압과 관련해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이같이 말했다.

통일연대가 주최한 ≪이회창 망언규탄, 불법연행감금 영등포경찰서장 파면요구 기자회견≫에서 이종린 의장은 여는 말을 통해 어제의 기자회견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에 대해 규탄한 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이 민족적으로 합의된 6.15 공동선언을 폐기하려는 것은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종린 의장은 ≪이제라도 이회창 후보는 모든 발언을 취소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다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돼 밤 11시경에 풀려난 김이경 통일연대 사무처장은 정황 보고를 통해 ≪기자회견장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어제 경찰들이 사지를 끌고 온갖 폭행을 하면서 끌고갔다≫며 ≪끌려가면서 얻어맞다가 몸부림치며 손이 갈 수도 있는데 경찰들은 내가 뺨을 때려 끌고 갔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김이경 사무처장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당신들은 한나라당과 공모하여 힘없는 노인들과 약자들을 폭력으로 탄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민경우 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은 ≪어제 심지어는 기자들도 연행되었다≫며 ≪어제 여기서와 같은 기자회견은 미대사관 앞에서도 청와대 앞에서도 계속 해 왔는데 영등포경찰서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우리는 한나라당사 10층에서 거행된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 후원회 때문에 경찰이 그렇게 과잉진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6.15 선언 폐기 운운하는 것은 7천만 민족의 염원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제 정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민족적 폭언≫이라고 규정하고 ≪더욱이 위험스러운 것은 이번 발언이 6.15 선언을 대통령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계산된 목적하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장에 난입한 경찰은 플랭카드와 각종 집기를 탈취해 가는가 하면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을 연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칠순, 팔순의 노인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을 수시간씩 뙤약볕에 가뒀≫으며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장 주변에 있던 일반 시민들은 물론 기자들까지 무차별 연행되었으며 여성 참가자들은 사지가 들린 채 경찰 버스에 내동댕이쳐졌다≫고 비난한 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된 참가자들을 면회하기 위해 갔던 사람들을 영등포 주변 길가에 경찰들을 동원하여 수시간에 걸쳐 감금하였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회창 대선 후보는 6.15 선언 폐기 운운하는 반민족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과 ≪경찰 책임자는 사과하고 영등포 경찰서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도 어제 집회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한 문재룡 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은 ≪법치국가라고 하는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 국가냐≫며 ≪기자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잡아가는 깡패국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문재룡 부의장은 ≪몸이 예전보다 무거워진다≫고 걱정하며 이날 집회에서도 주저앉아서 참석해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어제 연행되었던 정선 통일연대 조직국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어제와 똑같은 기자회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어제의 경찰 폭력은 한나라당 후원회 때문이었던 것≫이라며 ≪어제 기자회견을 망치는 것을 보면서 이회창이 정계에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이회창 반대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현장 지휘자였던 진희철 영등포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은 기자연행에 대해 ≪주최측과 이야기 도중 경찰청 쪽에서 연락이와 확인해 봤으나 이미 경찰서로 연행된 후였다≫며 ≪오랜 공직 생활에 현장에서 책임자인 나도 모르게 진행된 것을 알고 허탈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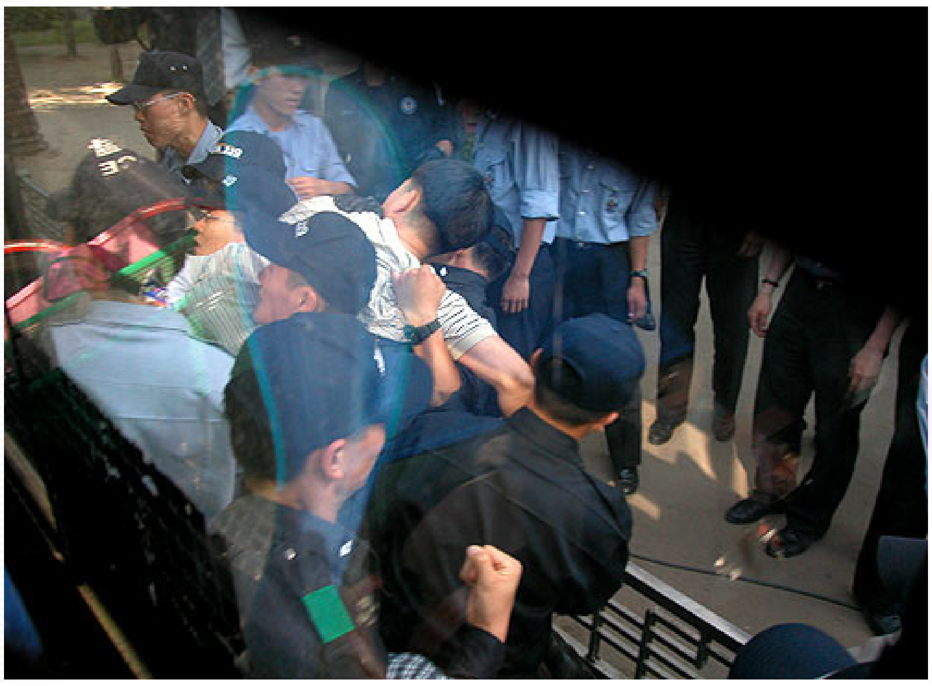
진희철 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어제와 같았으나 연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나는 (서장의) 참모일 뿐이다≫며 답을 피했다.

정대연 통일연대 대변인은 ≪사실 어제는 간단히 기자회견만 하고 끝내려고 했으나 경찰이 방해해 일이 더 커졌다≫며 ≪오늘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실상 불법집회 형식에 가깝게 일부러 진행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결국 경찰이 어제의 폭력 진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세를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대측은 27일 11시에 경찰청 항의방문 등을 통해 경찰측의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회창 후보는 23일 시민단체 초청 토론회와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조항의 존속 여부를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6.15공동선언 2항에 대한 비판적인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관 기자
2002/05/25 통일뉴스



통일연대, 6.15축전성사 이적규정철회 농성시작

6.15민족통일대축전의 성사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에 의한 핵전쟁을 막아내자.

통일부의 특정 단체, 인사에 대한 선별, 배제에 의해 6.15민족통일대축전 실무회담이 무산되었고, 나아가 6.15민족통일대축전의 성사마저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연대는 6.15민족통일대축전을 기필코 성사시켜 미국의 대결정책, 전쟁위협과 김대중 정부의 소극적이고 사대적인 정책, 반통일세력의 대립과 분열 책동에 맞서 7천만 겨레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통일대장정을 이어내기 위해 5월 27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와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농성≫을 시작합니다.

5월 27일(월) 오전 11시는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와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곧바로 노상 농성에 들어갑니다.

이제 6 · 15 공동선언 발표 2주년이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6 · 15 공동선언 발표 2주년이 되는 올해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내외의 도전에 맞서 6 · 15 공동선언을 다시금 전민족적인 대세로 확고히 정착시켜야 하며 각계각층에서 분출하고 있는 역동적인 전민족적 통일운동에의 진출을 6 · 15 공동선언의 두리 아래 더욱 강력하게 결속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또한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미국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전쟁기도 음모는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엄중한 문제로 치닫고 있으며 이에 7천만 민족이 더욱 일치한 민족화해와 단합의 흐름으로 맞서야 하는 정세로 치닫고 있는 시기이다.

우리민족의 자주성과 생명을 위한 근본 담보는 첫째도 6.15공동선언의 실현이요, 둘째도 6.15공동선언의 실현이다.

이러한 시대적 의의에 맞게 4월 12일 남북의 민간단체들은 금강산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는 거족적인 통일대축전을 치를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순탄하지 않다. 6.15선언의 주체로서 누구보다도 민간통일운동의 고무하고 지원해야할 현정권은 미국과 수구반통일세력의 압력에 눈치보기를 일삼으며 사실상 6.15민족통일대축전의 성대한 성사를 갖은 방법으로 막아나섬으로써 또다시 민족의 운명은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12일의 실무회담이후 5월 8일로 예정되었던 민족통일대축전을 위한 금강산 실무회담은 노골적인 직무유기로 무산시켜 버린 것이다. 통일부의 변명은 북측에서 도착한 초청장이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경우했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통일연대가 공개질의를 통하여 통일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이제까지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였는지에 대하여 한마디의 변명조차 하지 못한체 그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외면하고 있다.

조국통일의 위업은 7천만 민족 전체가 함께 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이며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누구라도 차별없이 참가해야 한다는 것은 6 · 15공동선언의 본질이다.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팩스문제조차 해결할 의지가 없는 현정권이라면 사실상 아직도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범민련 한총련을 선별 불허 통제하려는 것은 외세와 수구보수세력의 6.15공동선언 파탄 음모에 짓눌려 민족대단결의 기본 정신을 뿌리채 흔들어놓음으로써 6.15공동선언마저도 미국의 입맛에 길들여진 핵심없는 선언으로 탈색시켜 놓으려는 저열한 음모가 아닌가 ! 이러한 미국의 기도는 최근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6.15공동선언 2항을제고하자는 천인공노할 매국적 발언을 통하여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통일연대는 미국과 수구반통일세력에 놀아나는 현 김대중 정권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손으로 6.15공동선언을 사수하고 이번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고야 말 것이다. 그것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켜 내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

범민련 한총련이 배제된 민족통일대축전은 7천만 민족의 축전이 될 수 없다. 또 미국과 수구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방해도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려는 전 민족의 참된 열망을 막아낼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선언한다.

그것이 오늘 통일연대가 농성에 돌입하며 밝히는 우리의 근본 요구이며 투쟁의 결의이다.

우리의 이러한 의지가 보다 순탄하게 민족 생존의 길을 열어나가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현정권은 이제라도 동요를 청산하고 민족통일대축전의 성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통일부는 6.15민족통일대축전을 위한 금강산 실무회담을 보장하라!

– 6.15민족통일대축전 반드시 성사시켜 민족의 화해와 생존을 지켜내자!

– 한총련 범민련의 합법화로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자!

2002/05/27 통일연대

검찰 ≪KAL 858기≫ 사건 기록 일체 비공개 결정 논란

정부기록보존소 국과수 등의 일부 공개 조치와 상반

검찰이 지난 87년 11월 발생한 KAL 858기 폭파사건 기록 일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차옥정(여)씨 등 KAL 858기 실종자 가족 14명이 서울지검에 낸 KAL 858기 폭파사건 주범 김현희씨의 수사 및 공판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4월 13일자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수사기록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공판기록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이유 외에도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비공개를 결정한 관련 기록은 김현희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탄원서, 진정서,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사체부검의뢰서, 검시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소장변경신청서, 항소장, 변론요지서, 상고장 등 공판기록 전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현희씨와 함께 KAL 858기 폭파 공범으로 사건직후 독약앰플을 깨물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일(하치야 신이치. 蜂谷眞一. 사망 당시 69세)씨의 검시보고서를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지난 13일 공개한 바 있다. 이 검시보고서는 검찰이 비공개를 결정한 검시조서와 사실상 같은 문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기록보존소도 지난 1월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김현희씨의 공판기록의 일부인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을 공개한 바 있다.

실종자 측 변호인인 심재환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건임에도 검찰이 다른 사람도 아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청구를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서울지검을 상대로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거나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옥정씨는 ≪국과수나 정부기록보존소는 관련 기록을 공개하는 데 반해 검찰만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비공개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가 김현희씨의 사생활 보호라고 밝혔는데 15년 동안 가슴앓이를 해온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수사기관인 검찰은 다른 정부기관보다 정보공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같은 차이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인 ≪대한항공 858가족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통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 당시 비행기 블랙박스에 대한 수색작업 및 초동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7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홍기혜 기자
2002/05/26 프레시안

효자

불효를 강요하는 사회는 이그러진 사회이다. 케케묵은 삼강오륜을 들추어 내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수는 없는것이다.

21세기에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땅에서 4년째 수배생활을 강요당한 아들은 아버지의 부고에 접하고도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자유로이 찾아 가지 못했다. 검거를 두려워 했기때문이다. 살아 생전에 아버지는 너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 절대로 붙잡히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다고 한다. 그런 아버지의 뜻을 고스란히 간직한 아들이였지만 기어이 장지(葬地)에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체포를 심려하여 극구 반대하였다.

앞을 못 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림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의 이야기를 꺼낼것도 없이 예로부터 부모들을 잘 모시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이라 할수 있다. 더구나 격동의 시대에 피눈물도 많이 흘린 아버지와 아들이 영결의 기회마저 빼앗긴다면 그처럼 가슴 아픈 일이 있겠는가. 거기에는 부모의 부고를 이역땅에서 접하여 피눈물을 흘리던 1세동포들의 삶도 겹쳐 온다.

령구가 발인되는 날 장지로 떠난 어머니는 ≪한총련≫의 150여명의 학생들에게 둘러 싸인 아들을 보게 된다. 아들은 아무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도록 든든히 호위되였었다. 학생운동을 하는 아들과 친구들을 못미더워 한 어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자, 이제 친구들에게 가라. 그리고 네가 옳다고 믿는 일, 열심히 하거라.≫ 남조선에서 발행되는 ≪민족21≫ 6월호에 나온 짤막한 기사에 참된 효자와 반북반공의 유물을 보았다.

2002/05/24 조선신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2)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김정일장군님 - 주체81(1992)년 5월 23일

2) 조선영화의 얼굴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첫시작부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조선영화의 대표작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의도를 훌륭히 실현해나갔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조선을 대표하는 영화, 조선영화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는 조선의 넋과 조선의 기상, 조선의 향취가 집중적으로 체현되어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체현되어 있은 조선의 넋은 다름아닌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인민이 제일이고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입니다. 조선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녀야만 우리 나라, 우리 겨레를 위하여 한생을 참되고 보람있게 살수 있으며 죽어서도 영생할 수 있습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나라와 겨레를 배반하고 반역의 길을 걷게 되며 비극적인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최현덕, 차홍기를 비롯한 곡절많고 불우한 인생행로를 헤쳐온 주인공들의 운명을 통하여 이 진리를 깊이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관적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나라와 민족을 등진 반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인생말년에 와서야 비로소 한생을 헛되게 살아왔다는 것을 절감하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품, 우리 당의 은혜로운 품,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운 품에 안겨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된 삶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인생말년에 그들의 운명에서 일어난 그렇듯 심각하고도 엄청난 극적인 전환은 그들이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 우리 당의 위대성, 우리 인민의 위대성,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을 진심으로 체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각이한 운명의 길을 걸어온 각이한 인간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지금 얼마나 위대한 품에 안겨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되새겨보게 하며 아직은 비록 유족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때까지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면서 이 땅 위에 건설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인민,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일관되어 있은 기본사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의 넋이며 조선의 넋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은 여기에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조선영화의 얼굴로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는 조선의 기상이 나래치고 있습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나래치는 조선의 기상은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재더미만 남았던 이 땅위에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운 영웅적 기상이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으로 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엄혹한 사태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혁명적 기상입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투장면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으면서도 사단장인 항일혁명투사 강훈과 정찰중대장 곽대식, 그의 여동생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형상을 통하여 적들에 비한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정치도덕적 우월성과 미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한 영웅적 기상을 힘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또한 최현덕이 그리운 조국의 품에 안겨 을밀대에 올라가 웅장화려하게 건설된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는 장면과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에 찾아가서 오래동안 헤여져있던 이모와 마을사람들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통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조국의 현실을 많이 펼쳐보이지 않고 주인공들의 극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만 내놓으면서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위력이 잘 나타나게 한 것은 아주 훌륭한 영화적 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풍기는 조선의 향취는 우리 인민의 웅심깊은 정신세계와 조상전래의 미풍양속,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향취입니다. 영화에서 풍기는 조선의 향취는 주인공들이 부닥치게 되는 조국인민들의 성격과 생활, 현실의 다양한 정경을 펼쳐놓은 기름진 화폭, 주인공들의 내면세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하는 음악의 선율에서 진하게 안겨옵니다. 영화의 매부들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은 서경만 보아도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수난당한 우리 인민의 눈물겨운 정상과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하기 어려운 리별의 시각에 혈육들사이에 오가는 뜨거운 인정세계를 감동깊게 펼쳐보여주고 있습니다. 류랑민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통탄하듯 사나운 눈보라가 타래치며 《아리랑》의 관현악선율이 흐느끼듯 울리는데 뒤이어 조국땅에 드리운 암흑을 헤가르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거연히 솟아오르고 그위에 장군별이 반짝이며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가 관현악으로 울리는 서경은 그야말로 담고 있은 생활과 정서에 있어서나 그 형상성에 있어서 조금도 흠잡을데 없는 조선적인 화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전체 화폭에서 짙게 풍기는 조선적인 향취로 하여 거대한 정서적 침투력과 감화력을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보면 조선예술의 새로운 경지, 참다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3) 세계적인 걸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제기하고 있은 문제의 세계적인 의의와 그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해명으로 하여 단연 세계적인 걸작으로 됩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그 제명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문제는 일찍이 일제의 침략에 의하여 빚어지고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로서 우리 세대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민족문제는 비단 우리 나라에서뿐 아니라 지난날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과 오늘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에서도 다같이 제기되는 근본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문제는 세계적 의의를 가지는 인류공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학예술분야에서는 민족문제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세계영화역사에는 물론, 수천년의 인류문예사에도 민족의 운명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시기 세계문학예술계에서는 주로 모성애에 대한 문제,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문제, 선과 악에 대한 문제, 도덕적 양심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을 인류의 공동적인 관심사로 되는 주제로 여겨왔습니다. 문학예술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계급해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였습니다. 그러나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이 제기한 모든 인간문제는 민족문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계급과 계층도 민족의 한 구성부분이고 개인의 운명이 민족의 운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은 것만큼 계급해방문제는 민족문제, 민족의 자주성을 이룩하는 문제와 떼여놓고 생각할 수

민족문제는 비단 우리 나라에서 뿐 아니라 지난날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과 오늘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에서도 다같이 제기되는 근본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문제는 세계적 의의를 가지는 인류공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그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주었습니다. 지난날의 문학예술작품에서는 민족의 운명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똑똑한 해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족문제에 대하여 바로 규정할 수 있는 철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성을 사람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보는 주체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민족의 사활적인 문제를 전면에 제기할 수 있었으며 그에 올바른 예술적 해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혈분만국회≫, ≪꽃파는 처녀≫,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서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수난당한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그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주시였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바로 그 빛나는 전통을 본보기로 하여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온 겨레가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주체적 민족관을 빛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세계적인 걸작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맞이하여 조국에 왔던 수많은 해외동포들은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보고 한결같이 제목이 좋다, 세계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철학이 있다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제기하고 있은 문제의 인류사적 의의에서 뿐 아니라 포괄하고 있은 내용과 규모의 방대성, 주제해명의 깊이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걸작입니다. 세계영화역사에는 수십부에 달하는 다부작예술영화가 적지 않지만 ≪민족과 운명≫처럼 옹근 한세기에 걸치는 민족수난의 역사와 민족번영의 역사를 민족의 운명을 안고 몸부림치며 그것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파란곡절을 겪어온 각이한 계급, 각이한 계층의 인물군상을 주인공으로 하여 방대한 규모로 형상한 영화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문예사에서는 최현덕과 같이 반민족, 반공의 최선두에 서있던 사람이 인생말년에 이르러 자기가 한평생 지켜온 ≪신념≫을 버리고 사상전환을 이룩한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은 작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수십년의 역사적 과정을 국내는 물론, 세계의 여러 나라를 무대로 하여 다양하고 폭넓게 펼쳐놓으면서도 그것을 극적으로 집약화하여 형상의 폭과 깊이를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연기형상을 비롯한 다른 모든 형상에서도 당당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선 걸작입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출연한 배우들은 특색있는 개성적인 연기로써 인물의 성격을 인상깊게 살려 화폭에 각이한 시대, 각이한 계층을 대표하는 다양한 인물군상을 펼쳐놓았으며 영화의 전반적 형상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출연한 배우들이 거둔 주되는 성과는 연기를 화면에서 하려 하지 말고 실지 현실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하여야 한다는 연기형상원칙을 빛나게 구현하여 진실로 인간다운 형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높은 창조정신을 가지고 새롭고 특색있는 행동세부를 찾아내여 인물의 성격을 인상깊게 개성화하면서 복잡하게 뒤엉킨 내면세계를 섬세하고 깊이있게 드러내며 인물을 그의 성격과 생활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하면서도 세련미가 있고 격이 있게 형상한 것도 주요한 성과입니다. 이것은 주체적 연기체계와 연기방법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제1~7부에서 울리는 음악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고 장면의 생활에 어울리는 명곡입니다. 창작가들은 주제가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비롯하여 노래 ≪기러기떼 날으네≫, ≪운명의 갈림길≫과 같은 명곡을 영화의 장면에 맞게 썼으며 민요 ≪아리랑≫을 비롯하여 1930년대에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운 신민요와 가요를 시대적 미감에 맞게 훌륭하게 형상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이런 음악은 영화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고 정서적 감화력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편을 통하여 다양하게 울리고 있은 주제가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소박하고 평이하면서도 뜻이 깊고 정서가 넘치며 민족적 향기가 짙으면서도 현대적 미감에 맞는 명곡으로서 영화의 종자와 주제사상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철학성과 풍만한 정서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노래 ≪기러기떼 날으네≫는 만리타향에서 떠나온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에 몸부림치는 주인공들의 내면세계, 심각한 극적 체험을 감동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명곡이 얼마나 큰 정서적 감화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명곡도 격에 맞게 써야 빛이 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연출형상, 촬영형상, 미술형상에서도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습니다. 인물성격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형상을 조화롭게 결합한 전일적인 대화폭 속에서 뜻깊은 사상을 풍만한 정서적 흐름을 타고 조형적으로 감동깊게 보여주는 하나하나의 기름진 화면과 그것의 진실하고도 박력있는 전개는 연출과 촬영, 미술의 성과와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그 사상적 내용과 예술적 형상에서 주체적 문학예술을 빛나게 총화한 나무랄 데 없는 세계적인 기념비적 걸작입니다.

2. 문학예술혁명을 힘있게 벌여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문학예술혁명은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이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개조될 때까지 중단없이 계속 수행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혁명은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고 있으며 내일도 계속됩니다. 일부 창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문학예술혁명이 이미 1970년대에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학예술부문에서 새로운 창작적 앙양이 일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창작사업을 포치하고 거기에 힘을 넣고 있은 것도 문학예술부문의 이런 실태로부터 문학예술혁명을 더욱 추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기수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를 문학, 영화, 가극, 연극, 음악, 무용, 미술, 교예를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 일반화하여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합니다.

1) 민족의 운명문제에 대한 예술적 해명

오늘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은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하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족문제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인공적인 민족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은 우리 나라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역사적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 계속)

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 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7. 영생의 꽃(3)

김금순

그 해 가을 요영구 유격대에는 금순이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기적같은 풍문이 떠돌았다. 그 소식을 들은 금순이가 머리카락 짬에 들국화 송이들을 여라문 개 꽂고 요영구골 안이 좁다하게 나비처럼 팔랑팔랑 날아다닐 때 금순이네 가정 내막을 잘 알고 있는 근거지의 군중들은 한 사람같이 흐뭇한 심정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다.

아동단조직에서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하는 금순이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주기로 하였다. 나이는 어리지만 도리에 밝고 집단주의정신이 강한 금순이는 처음에 조직의 이 배려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부모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한둘도 아닌데 자기 혼자만 그런 특전을 받을 수 있겠는가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금순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우리 부대가 전각루에서 북만원정 준비를 다그치던 1934년 가을이었다. 그때 금순이네 아동유희대는 그 고장에 와서 연예공연을 하였다. 원정대원들을 전송하기 위한 특별공연이었다고 생각된다. 공연이 끝난 다음 우리는 노루를 잡아서 아동유희대원들에게 교즈를 만들어 먹였다.

내가 유희대원들이 식사하고 있는 집을 돌아보고 나올 때 금순이가 갑자기 먹던 음식그릇을 밀어놓고 내 곁에 바삐 다가와 무슨 큰 비밀이라고 뚱겨주듯이 귓속말로 소곤소곤 속살거리는 것이었다.

≪장군님! 우리 엄마가 살아계신대요!≫

≪오냐. 유격대 아저씨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들 기뻐한다.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난 오늘 너무 기뻐서 독창을 세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두 또 부르고 싶었지요 뭐.≫

≪그럼 자꾸 부르려므나.≫

나는 전각루마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마련해가지고 온 몇 가지 전리품 가운데서 참빗과 얼레빗을 각각 1개씩 꺼내어 금순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금순이는 어리광이라도 부리듯이 내 팔에 마구 휘감겼다. 나이는 어리나 응석기라고는 조금도 없던 이 귀여운 소녀의 몸가짐과 언행에서 새의 퍼덕거림과도 같은 환희의 선풍을 느끼게 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였다.

≪그럼 인차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구나. 네가 떠날 때 나는 너를 바래줄 것 같지 못하다. 북만에 가야 하니까.≫

이것이 내가 금순이에게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말이였다.

금순이가 전각루에서 유희대활동을 마치고 아동단학교로 돌아간 것은 요영구 혁명조직에서 적구에 보내는 극비문건을 전달할 연락원을 물색하고 있을 때였다.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조직에서는 심중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그 적임자로 결국 금순이가 선발되었다.

나어린 금순이는 혁명조직이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중요한 연락임무를 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최대의 믿음으로 고맙게 받아들였다. 금순이가 적구로 내려가는 날 한성희는 그를 물가에 데리고 나가 마치 시집가는 새색시의 차림새라도 보아주듯이 세수도 시켜주고 머리로 빗어주고 신들메도 매어주고 치마의 주름살도 펴주었다. 큰 머루알만한 도토리알 세 개를 핀으로 꿰어 리본 대신 머리에 꽂아주기도 하였다.

그날 아동단원들은 동구 밖까지 따라나가 금순이를 바래주었다.

어데까지 가니
연길까지 간다
어느령을 넘니
길청령을 넘지
무엇하러 가니
통신연락 가지
누구하고 가니
나혼자서 가지

금순이는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며 숲속 길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그 가사는 그가 걸음을 옮기면서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었다. 동무들은 그 노래를 듣자 손뼉을 치며 웃어댔다. 그리고는 목청을 합쳐 요영구골 안이 떠라나게 그 노래를 되받아 불렀다. 금순이는 조직이 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다음 어머니가 계신다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다가 어른들과 함께 일본헌병대놈들에게 체포되었다.

놈들은 금순이가 유격구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은근히 쾌재를 올렸다. 중요한 정보자료들을 게워놓을 수 있는 ≪새끼공산당≫이 굴러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마 그들은 금순이가 요영구에서 왔다는 사실까지도 다 알아냈던 것 같았다. 요영구는 동만지도부가 자리잡을 곳이니 잘만 구슬리면 큼직큼직한 비밀들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한 모양이였다.

실지로 금순이가 유격구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였다.

혁명군의 활동, 간부들의 움직임, 유격구와 반유격구를 연결하는 비밀통로, 근거지 주민들의 생활형편과 동향 등은 그가 다 알고 있는 것이였다. 금순이가 유희대에 망라되어 적구에 가서도 공연활동을 많이 한 것만큼 그를 굴복시키기만 하면 지방조직들의 비밀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다.

적들은 이런 가능성을 저울질해보고 그에게서 귀맛이 당기는 정보자료들을 있는 힘껏 비틀어 짜내려고 하였다.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놓고 달콤한 말로 그를 달랬다. 다음에는 위협도 하고 고문도 하였다.

나는 전에 외국소설에서 어떤 섬마을의 어린애가 은시계에 유혹당하여 새초더미 속에 숨어있는 사람의 행처를 대주었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처형당하는 이야기를 읽은 일이 있다. 그 소설을 보아도 알겠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을 구슬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아이들은 물질에 유혹당할 수도 있고 위협이나 고문 앞에 굽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생활을 통해 정치적으로 단련된 아이들은 지조를 굽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의 아동단원들 가운데는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한 푼의 돈과 바꾼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 해방 후 우리 당의 품 속에서 자라난 서강렵, 이헌수, 임형삼도 13-15살 안팎의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적의 총구 앞에서 조직의 비밀을 불지 않았다.

금순이는 항일혁명의 풍랑 속에서 강철로 단련된 불굴의 어린 투사였다. 이 나라의 어린 딸은 살점이 떨어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연 것은 오직 교형리들을 욕하고 저주할 때뿐이었다.

≪만약 네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를 죽일 것이다!≫

금순이를 취조하던 헌병장교의 말이었다.

≪더럽다! 너같은 강도놈들과는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금순이의 대답히었다.

악착한 교형리들은 혁명군의 비밀을 불지 않는다는 단한가지 이유로 어린 금순이를 죽이려 하였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유격구 주민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다 이를 갈며 치를 떨었다. 백초구 들판에는 눈물의 바다가 고였다. 그러나 금순이는 오히려 자기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아버지, 어머니들. 왜 우십니까. 울지들 마세요. 혁명군 아저씨들이 꼭 원수를 쳐 없앱니다.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굳세게 싸워주십시오!≫

불을 토하는 것 같은 이 최후의 절규에는 9살밖에 되지 않는 그의 생애가 짤막하게 함축되어 있었다.

사형장에서는 ≪일제놈들을 타도하자!≫ ≪조선혁명만세!≫를 부르짖는 금순이의 앳된 목소리가 맵짜게 울렸다.

나는 금순이가 학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동안 아동단 학교에 찾아가지 않았다.

어쩐지 그 학교에 가기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금순이가 없는 아동단학교, 금순이가 없는 아동유희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한정없이 서글퍼졌다. 적들은 내 곁에서 왕청사람들이 그렇게도 총애하던 유희대 나비, 유격구의 종달새를 영원히 앗아간 것이다.

이제는 그 누가 금순이처럼 고생 속에 혈전분투하는 유격구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도 낭낭하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도 발랄하고 경쾌하고 맵시있는 율동으로 춤을 추겠는가. 그 누가 금순이처럼 거침없는 중국말 노래로 구국군 장병들의 애간장을 녹이며 아침마다 백마를 타고 산책을 길을 더듬는 나를 향해 금순이처럼 영롱하고 생기있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어보이겠는가.

금순이의 최후에 대한 비통한 소식을 왕청 일대의 혁명군중을 분기시켰다. 요영구골 안에서는 금순이의 추도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동만 각 현에서 격노한 수십 명의 남녀 청년들이 금순이의 복수를 다짐하며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다.

항일의 소년영웅 김금순에 대하여 소개한 동북항일렬사전(1936.5)

국제당 계열의

잡지와 중국과 일본의 출판물들은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투쟁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린 영웅에 대하여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으며 ≪어린 열녀의 약전≫이란 제목으로 금순이의 영웅적 생애를 격찬하였다. 한뼘도 되지 않는 자그마한 발로 사품치는 강하와 메부리들을 쉴새없이 넘고 건너며 혁명의 노래를 열정적으로 부르던 유격구의 종달새 금순이는 이처럼 9살 나이에 세계를 격동시킨 인물이 되었다.

우리 나라 현대 역사에는 유관순이라고 부르는 이름난 순국처녀가 있다. 유관순이라고 하면 먼저 기미년 3.1운동을 회상하게 된다. 서울 이화학당에서 교비생으로 학업에 전심하던 처녀는 3.1운동의 열파로 학교가 페쇄되자 고향 충청남도 천안에 내려가 독립만세시위를 조직하고 그 시위를 진두지휘하다가 일본헌병들에게 체포되였다. 법관들은 그에게 7년형이라는 중형을 언도하였다. 3.1인민봉기를 최초에 선도한 33인에게 가한 형기가 최고 3년에서 최하 1년이라는 것과 그 33인 중에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일본법정이 16살밖에 안된 처녀를 얼마나 무서운 중범으로 취급하였는가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7년이면 3.1독립운동사상 최고의 형량이라고 시골농부들까지도 혀를 내두르며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유관순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한 후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줄곧 그를 ≪조선의 잔다르크≫라고 부르며 뜨거운 애정을 담아 추억하고 있다.

김금순의 장렬한 최후를 보도한 신문자료

그러나 금순이한테는 아직 그런 칭호가 붙어있지 않다. 그와 대등한 나이의 영웅소녀와 없거니와 그의 투쟁업적에 견줄만한 위훈을 세운 처녀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3.1의 영웅 유관순과 함께 김금순과 같은 소년영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없이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고 영광이다. 최근에 금순이를 형상한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후대들에게 그의 위훈을 충분히 소개할 수 없다. 금순이와 같은 소년영웅들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서는 금상이나 동상을 세워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김금순은 9살을 살고 영생을 얻은 소녀였다. 9살이며 꽁다리연필처럼 짤막한 생애이다. 그러나 번개와 섬광과도 같이 번뜩거리다가 사라진 이 어린 나이에 그는 인생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 높이에 도달하였으며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산 모범으로 똑똑히 가르쳐주었다. 세상에는 100살을 살 때까지 민족앞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그는 9살에 후대들의 추억 속에 영생할 위훈의 창조자가 되었다.

김금순과 같은 어린이를 세계적인 소년영웅으로 키워낸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항일의 불바다 속에서 수많은 소년영웅들을 육성하였다.

김금순, 전기옥, 목운식, 강용남, 박명숙, 박호철, 허정숙, 이광춘, 김득봉....

그들은 모두가 항일혁명의 폭풍 속에서 배출된 나어린 열사들이다.

≪나를 총으로 쏘지 말고 날창으로 죽여달라. 그리고 총알은 유격대에 보내달라.≫

이것은 통신연락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들에 체포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간 훈춘의 아동단원 전기옥 소년이 최후의 순간 위만경찰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다.

처형 직전의 그 무시무시한 긴장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자기 개인의 목숨이나 육체를 걱정하기에 앞서 유격대를 생각하고 항일전쟁의 승리를 생각한 그 숭고한 혁명정신은 교형리들까지도 감동시켰다.

목운식소년의 위훈도 세계 만방에 자랑할 만한 것이였다. 짚신 속에 비밀 통신쪽지를 감춰가지고 영창동에서 평강으로 가던 그는 길청령 경비막 앞에서 적들의 문초를 받게 되었다. 온몸을 샅샅이 뒤지면서 비밀을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던 적들은 소년의 왼쪽 발에서 짚신을 느닷없이 벗겼다. 그 순간 목운식은 일각의 여유도 없이 문초하던 자위단원을 밀치고 경비막 안으로 뛰어들어가 부엌 아궁이에 바른편 발을 다짜고짜 밀어넣었다. 바른쪽 짚신에 비밀쪽지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간파한 적들은 아궁이에서 소년을 끌어내려고 그의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러나 목운식은 온몸에 내려지는 뭇매를 당하면서도 부엌돌을 힘껏 그러안고 불 속에서 발을 뽑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짚신도 타고 발도 타고 솜바지 가랑이도 다 타버렸다.

적들은 목운식을 병원으로 떠메고 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의 가슴에 주사침을 놓고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비밀을 뽑아내려는 적들의 심사는 실로 검질긴 것이었다. 그러나 목운식은 그 비밀을 굳건히 간직한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항일무장투쟁을 일선에서 후원한 아동단원들과 소년선봉대원들은 모두가 우리 혁명 1세들 중에서 가장 어린 세대를 대표하는 영웅들이었다. 지금도 우리 혁명은 사로청과 함께 소년단을 노동당의 믿음직한 저수지로 보고 있다. 우리가 온 나라의 보화를 다 모아 아이들의 궁전을 건설하고 후대교육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일군들에게 후대들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미래를 사랑하지 않는 혁명, 미래를 가꾸지도 돌보지도 않는 혁명은 전망성이 없는 혁명이다. 그런 혁명이 그 어떤 금빛 찬연한 이상을 달성하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구의 한쪽에서는 지금 향락주의가 전염병처럼 만연되고 있다. 후대들이야 어찌되든지간에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침식해들어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후대가 생기면 거추장스럽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마저 포기하고 있다. 사람이 결혼을 안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물론 각자의 자유이다. 하지만 후대들이 없이야 무슨 낙이 있겠는가.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와 향락에 중독된 수정주의자들은 후대들을 돌보지 않고 있으며 그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켜 온갖 사회악 앞에 사정없이 내던지고 있다. 10대의 어린이들이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집권자들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며 혼란된 현실에 눈물을 짓는다면 그 나라의 혁명은 의심할 바 없이 미래가 없는 혁명이며 전도가 암담한 혁명이다. 일군들이 후대들을 위해 시간과 돈과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혁명은 더 많은 김금순과 전기옥과 목운식을 낳게 될 것이다. 금순이의 일가는 이름난 혁명가의 가정으로 항일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혹한 수난을 당하였다. 아버지는 왕우구에서 지하혁명조직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민생단≫으로 몰려 피살되었고 어머니는 손에 총을 잡고 근거지를 지키다가 싸움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금순이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내적으로 어려운 과업을 많이 주었다.

어랑촌유격구의 아동단학교

금순이의 아버지는 한번 과업을 받으면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해제끼고야 마는 강의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금순이까지 셈하면 그의 일가에서 다섯 명이 희생된 것으로 된다. 유관순의 가정이 겪은 운명과 어쩌면 그렇게도 비슷한지.

하지만 그처럼 가혹하고 무자비한 운명의 신도 이 훌륭한 가정의 핏줄을 이어주기 위해서 후대를 한명 남겨주었다. 금순이의 어머니가 전투장에서 마을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간 금순이의 두 살 난 동생 김양남이 기적적으로 세상에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가 김금순의 동생이라는 것을 맨 처음 포착하고 나에게 그의 경력을 보고한 것은 **김정일**조직비서였다.

그 당시 김양남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기록영화촬영소에서 음악편성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공개된 어느 출판물에서 아버지가 민생단으로 처형되었다는 구절을 읽은 그는 자신에게 가해질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며 기를 펴지 못하고 고민하였다.

나는 김양남의 아버지가 민생단이 아니고 견실한 혁명가라는 것을 보증해주었다.

그때부터 김양남은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되어 **김정일**조직비서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보좌하였다. 그는 자기누이 김금순처럼 타고난 음악적 재능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소유하고 있었다. 솟구쳐오르는 망국민의 설움을 풀피리에 담아 처량하게 울리던 어젯날의 목동은 낮과 밤의 구별을 모르고 혁명적인 음악예술의 원전을 복구하는 가곡 창조사업에 심혈을 깡그리 바쳤다.

김양남은 **김정일**조직비서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서 만수대 예술단을 창립하고 그것을 세계적인 1류급의 예술단체로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공로자의 한 사람이다. 1971년 2월 만수대예술단은 조국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의 서반구 쿠바 땅에서 역사적인 첫 원정공연의 막을 올렸다. 그때 김양남은 정치부단장으로 예술단을 인솔하였다.

김정일조직비서는 김금순의 일가가 남긴 단 한명 밖에 없는 후손으로 2살때부터 남의 집 젖을 먹고 자라나 머슴꾼으로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을 보낸 김양남의 과거를 늘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그를 친혈육처럼 각별히 아끼고 사랑해주었다.

김양남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에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로 강력한 의료진을 뭇고 낮에 밤을 이어 집중적인 치료전을 벌이게 하였으며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나라 대사관들에 그의 병력서를 보내 효능 높은 고가 약들을 대량 구입해 들이게 하였고 제약공업이 발전했다는 여러 나라들에 특별비행기도 무시로 띄워보냈다. 김양남은 이런 은정 속에서 무려 10여 차례에 달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거의 2년동안이나 생명을 연장하였다.

김양남이 40살에 세상을 떠났으니 누이에 비해서는 네곱 이상의 세상을 산 것으로 된다. 하지만 장수자들이 많은 우리 시대의 척도로 보면 너무도 일찍이 끝장을 본 단명의 생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인박명≫이라는 고래의 생활철학이 인생이치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진리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수많은 김금순, 김양남이들을 위해 그 철학을 추방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김양남의 둘째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모교인 평양음악무영대학 작곡학부를 졸업하고 만수대 예술단에서 예술창조의 첫걸음을 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렀고 고모가 불렀으며 아버지가 부르던 혁명의 노래를 지금은 그가 부르고 있다.

선열들이 피로써 개척한 우리 혁명은 이처럼 대를 이어가며 훌륭하게 계승되고 완성되어가고 있다.

금순이는 죽었지만 그의 기개와 넋은 오늘도 후대들의 심장 속에 마촌과 요영구골 안을 뛰어다니던 천진난만한 그 시절처럼 생동하게 살아 고동치고 있다.

장군형 위인이 있어 강성 사회주의가 있다

울라지미르 베료진

(공산당연맹 - 소련공산당이사회 성원 겸 이사회 위원회 부위원장, 퇴역장령)

바야흐로 새 세기에 들어선 지금 사람들은 지나온 한 세기를 돌이켜 보며 자신의 활동과 인생을 총화해 본다.

온갖 세기적 사변들의 목격자이고 체험자들 중의 한 사람인 나 역시 자신의 인생총화의 글을 남기고 싶어 펜 끝에 천만 근의 무게를 주어 다음과 같은 글을 여기에 새겨놓는다.

- 장군형 위인이 있어 강성사회주의가 있다 -

이것은 인생 초년기로부터 중년기를 넘어서까지 군복을 입고 무장으로 나라의 안전과 부강을 지키는데 헌신하여 오다가 졸지에 사회주의 조국 소련과 군복을 잃는 곡절을 겪은 나로서 달리 할 수 없는 총화이다.

나는 나의 이 총화에 대한 증명을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어 사회주의 강성보루로 끄떡없이 서있는 조선의 현실을 통해 하려고 한다.

***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었을 때 세계는 그이의 공인된 후계수령으로서 **김정일**동지께서 과연 무엇으로부터 나라에 대한 영도를 시작하실 것인가에 초점을 모았다.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경우 새 정치지도자가 공식석상에서 자기의 정치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왔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정치사의 관례를 깨뜨리시고 원래의 최고사령관의 직분으로 인민들 속으로, 군인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영도의 거룩한 자국을 떼시었다.

이로써 세계는 장군식 영도를 이어나가실 **김정일**동지의 드팀없는 의지를 감수하였고 동서고금에 없는 장군형 위인의 새 역사를 맞이하였다.

나는 장군형, 장군식을 신봉하며 장군형 위인, 장군식 정치제일론을 주장한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아마도 내가 일생을 군복과 함께 늙어온 사람이어서 십분 그럴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나는 18살 때에 해병으로 군사복무를 시작하여 그후 30년 나마 줄곧 태평양, 흑해, 북해 함대들에서 지휘관으로 복무하면서 소련해군 장령으로까지 되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장군형, 장군식을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확고히 말해두건 데 나의 군 경력이 결코 내가 장군형 위인을 따르고 장군식 정치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이유와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나의 쓰라린 생활체험이, 나의 사랑하는 사회주의 소련의 붕괴의 교훈이 나로 하여금 장군형 위인의 귀중함과 장군식 정치의 정당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나는 반사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가 포기되고 정치사상사업체계가 허물어지는 등의 가슴아픈 일을 체험하며 병사는 있어도 영장이 없고 총대는 있어도 올바른 사수가 없는 우리 소련의 비극적 현실을 끝없이 통탄하였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청사지붕에서 날리던 붉은 당기가 제거되고 연이어 크레믈리에서 소비에트 붉은기가 내리워지는 순간 나는 숨이 꽉 막히는 것만 같았다.

과연 70여성상 힘차게 휘날려온 우리 소련공산주의자들의 사랑하는 붉은기가 그렇게 뜻밖에, 그렇게 쉽사리 차디찬 땅바닥에 참혹하게 내던져질 수 있단 말인가.

그 깃발에 바쳐진 선열들의 피가 적었고 1800만의 당원증에 물들인 소련공산당원들의 양심이 모자랐던가.

세계육지면적의 6분의 1과 세계 최대 무력에 쏟아부은 소련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 병사들의 피와 땀과 넋이 정말 부족했는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방 쏴보지도 못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잃을 수 있단 말인가.

장군형의 위인을 모시지 못한 소련사회주의가 당한 필연적 비극이였다.

그러나 장군형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조선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사실 조선의 사회주의를 고립 압살하려던 미국과 국제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은 역사에 유례없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들 같으면 그러한 난관에 몇백 번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선은 퇴보를 모르고 전진한다.

그 어떤 공세와 난관에 연속공격으로 맞받아 나가는 것을 영도천품으로 지니고 계시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올해에 조선이 나아갈 새로운 공격좌표를 그으시였다.

- 강성대국건설에로 -

연이어 그이께서는 그에 따른 공격방식으로 구보로 달릴 것을 제시하시였다.

진정 공격형 장군, 장군형 지도자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투쟁목표, 투쟁방식이다.

이미 그 좌표를 향하여 첫 화살이 날아올랐다.

지구를 들었다놓은 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인 발사는 강성대국건설에로 나아가는 진격의 장엄한 서곡이였다.

조선의 ≪광명성1호≫발사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조선이 순수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랑스럽게 이루어놓은 것으로 하여 기적적인 사변이며 사회주의를 새로운 부흥의 궤도 위에 확고히 올려 세운 전환적인 사변이다.

조선의 사회주의의 거대한 산물이며 그 경제적, 군사적, 과학 기술적 힘의 상징인 ≪광명성1호≫의 발사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 신심이 솟구쳐 올랐으며 사회주의는 역시 사회주의로구나 하고 무릎을 쳤다.

조선이자 사회주의이고 사회주의이자 조선이며 강성대국조선은 곧 강성사회주의이다.

나는 조선을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길로 이끄시어 강성사회주의의 밝은 길을 열어나가시는 **김정일**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는 바이다.

아니 그것은 나만이 아닌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진보적 인민들이 대를 이어가며 드려야 할 감사이다.

장군의 멋은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장군복이나 요란한 장군행차에 있지 않다.

고결한 인간적 풍모에 최고의 장군미가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군이시기 전에 위대한 인간이시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언제 한번 장군복 차림으로 인민 앞에 나타나신 적이 없건만 인민은 그이를 ≪경애하는 장군님≫, ≪어버이장군님≫으로 부르며 따른다.

지난해 9월 5일, 조선에서 새 국가지도부 구성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가 열렸을 때 지구상의 선량한 양심들은 세계의 명인이신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시려는 만민의 간절한 염원, 오랫동안 바라던 숙망이 비로소 실현된다는 한없는 기쁨과 격정 속에 이날을 맞이하였다.

한편 조선에서의 국가수반직 계승문제와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억측을 내돌리던 서방계 역시 이날을 특별한 호기심 속에 지켜보았다.

이처럼 엇갈린 감정의 관심 속에서도 하나로 흐른 것은 이날에 의심할 바 없이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공식 추대되실 것이라는 생각이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모시고 자신께서는 그이께서 생전에 맡겨주신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직책만을 다시 고스란히 이어받으신 **김정일**동지.

자신께서는 연설 한마디 남기지 않으시고 회의장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시정연설이 울려 퍼지게 하시어 그이의 유훈에 끝까지 충성 다할 의지를 말없이 보여주신 **김정일**동지.

진정 선대 수령 앞에는 그이의 위업을 영원히 계승하는 장군으로, 인민 앞에는 관직을 사양하는 영도자로 서계시는 **김정일**동지의 그 고매한 인간상, 숭고한 도덕의리심 앞에 세계는 머리 숙여 탄복하였다.

정녕 **김정일**동지는 충효의 화신, 인덕의 최고 체현자이시다.

그런 분이시기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명령을 발표하시어도 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사랑의 명령을 하달하시고 군인들과 인민들의 수고를 내세우는 믿음의 명령을 내리신다.

참으로 장군다운 도량과 의리, 장군다운 사랑과 믿음으로 사회주의 보루를 일심단결의 불패의 성새로 다지시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강성사회주의는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 빛날 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 전하는 강연회 영화감상회 세계 각지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회가 15일 페루 피비리크 비리아 레알 국립과학대학연구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연회에는 페루 주체사상전국협회 성원들과 피비리크 비리아 레알 국립종합대학 연구원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주체사상전국협회 위원장은 강연에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선군정치에 대해 언급하고 그분의 선군영도를 받는 이북 민중은 필승불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8일 모스크바 종합대학에서는 이북 영화 ≪위대한 영도의 빛나는 역사≫에 대한 감상회가 있었습니다.

16일 프랑스 파리 8구역 문화센터에서는 프랑스 외무상 공보국장을 비롯한 정계, 사회계, 언론계, 재계 인사 등 1천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프랑스 TV방송기자들이 이북 방문시 취재한 자료에 토대해 만든 기록영화에 대한 시사회가 진행됐습니다.

프랑스의 영화제작업자인 다비드 칼 라우는 영화시사회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화를 통해 문학예술부문에 쌓아올리신 **김정일**영도자님의 특출한 업적이 유럽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북 민중이 자기 영도자와 조국을 얼마나 높이 받들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실감있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사회참가자들이 이북의 현실에 대한 견해와 인식을 새롭게 가지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25일

민족의 통일념원을 반영한 시대의 걸작 -노래 ≪우리는 하나≫(1)

≪로동신문≫ 4월 28일

둘되면 못 살 하나 둘 합치면 더 큰 하나

지금 시대의 명곡 ≪우리는 하나≫는 2000년대의 통일가요로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이 가요가 조선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사랑하며 높이 부를 전 민족적인 노래로 되고 있는것은 오늘의 시대와 민족의 주도적감정을 작품에 담고 우리는 하나에 대한 문제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하고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유구한 세월 한강토우에서 한피줄을 이어 받으며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 피워 온 우리 민족은 애국심이 강하고 자주정신이 높은 민족입니다.≫**

가요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 지면 살수 없다는 민족의 운명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생활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풀이하고 있다.

피줄과 언어, 문화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 짓는 기본징표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가요의 1, 2절에도 있는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땅도 하나, 피줄과 언어, 문화와 력사도 하나인 단일민족이다. 오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줄을 잇고 살며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문화, 하나의 력사를 창조해 온 우리 민족이다. 반만년을 하나가 되여 살아왔기에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 때로부터 어느 하루도 민족이 겪고 있는 불행과 재난에 대하여 잊은적이 없고 조국의 통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 돌이켜 보면 광복후부터 오늘까지 우리 민족의 력사는 외세에 의하여 끊어 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조국통일의 력사라고도 할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나라의 통일이야말로 겨레의 운명과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여서 장장 반세기이상의 긴긴세월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겨레의 웨침소리가 그토록 절절하게 이 강산에 울려 퍼진것 아니던가.

하나의 생명유기체와도 같은 우리는 둘로 갈라 져선 살수 없는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이라는 온 겨레의 주장과 통일의지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여기에 가요가 안고 있는 철학적심오성이 있다.

가요는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면 태양조선, 태양민족의 위용을 세상에 보란듯이 떨치리라는 확신과 환희를 형상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조국을 통일하려는것도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며 전체 조선민족이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다같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민족이 뜻을 합치고 하나로 단결하는것은 당연한것이며 또 그것을 능히 실현할수 있다. 우리 민족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쌓은 훌륭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북과 남의 각계층 사람들과 해외의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통일열기의 뜨거운 정을 나누던 범민족적인 축전들과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출전하는 북과 남의 유일팀을 바라보며 우리 민족은 얼마나 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하나에 하나를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된다는 하나에 대한 심오한 철학을 밝혀주시였다.

그렇다. 하나에 하나를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되듯이 북과 남이 하나로 통일되면 우리 민족은 두려울것도 부러울것도 없는 강대한 나라로 될것이며 그 누구도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통일강성대국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세련되고 통속적인 시어와 부르기 쉬운 선률에 심오한 통일철학과 민족의 래일에 대한 환희와 확신을 담고 있음으로 하여 가요는 시대의 명곡으로, 민족의 노래로, 21세기의 통일가요로 높이높이 불리워 지고 있는것이다.

민족성이 강한 명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음악예술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고 그 나라 혁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우리 민족에게는 최대의 숙원인 통일의 념원을 반영한 노래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노래 ≪우리는 하나≫와 같이 민족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그토록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노래, 전 민족적인 통일가요로 높이 울려 퍼지는 시대의 명곡은 일찌기 없었다.

조국통일을 언제까지나 념원으로만 안고 살수 없는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과 의지가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되여 울려 퍼지는 노래 ≪우리는 하나≫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으며 시대의 통일가요로 널리 불리워 지고 있다.

노래 ≪우리는 하나≫가 시대의 명작으로 되고 있는것은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기때문이다.

매개 인민은 자기의 고유한 전통적인 민족음악을 가지고 있다.

민족의 노래는 민족생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며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계승발전되여 온 전통을 보여 준다.

노래 ≪우리는 하나≫는 예로부터 한피줄을 잇고 한강토에서 하나의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 온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가사화하여 통속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피줄, 언어, 문화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 짓는 고유한 징표이다.

노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찌기 밝혀 주신 민족의 이런 뚜렷한 징표들을 노래의 시어로 적중히 리용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노래가 조선사람모두가 공감하고 쉽게 따라 부르는 통속적이고 인민적인 가요로 되는 비결이 있다.

자기 민족의 심리적특성에 맞고 민족적감정과 생활체험을 그대로 반영한 노래라야 민족의 고유한 노래라고 말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도 노래 ≪우리는 하나≫는 민족의 노래로서의 품위를 잘 갖추고 있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우리 민족은 둘이 되면 못 살 하나, 둘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될 강대한 민족이다.

이것은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간직하고 사는 사상감정이다.

분단의 력사는 일시적이고 통일의 력사는 영원하리라는것은 오늘 7천만 조선민족의 하나 같은 의지이며 신념으로 되고 있다.

노래 ≪우리는 하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오늘의 시대적분위기속에서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7천만 겨레의 사랑을 받는 통일찬가로, 민족의 영원한 노래로 빛을 뿌리고 있다.

력사에 빛날 통일의 노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명곡은 사람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며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의의 있는 사변들과 함께 력사에 길이 남게 된다.≫**

조국통일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우리 민족에게는 최대의 숙원인 통일의 념원을 반영한 노래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노래 ≪우리는 하나≫와 같이 민족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그토록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노래, 전 민족적인 통일가요로 높이 울려 퍼지는 시대의 명곡은 일찌기 없었다.

조국통일을 언제까지나 념원으로만 안고 살수 없는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과 의지가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되여 울려 퍼지는 노래 ≪우리는 하나≫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으며 시대의 통일가요로 널리 불리워 지고 있다.

이번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서 북과 남, 해외의 예술인들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 같은 통일열망을 담아 노래 ≪우리는 하나≫를 소리높이 불렀다. 일본에 사는 남조선가수 김련자는 조국통일에 대한 간절한 념원을 안고 이 노래를 특색 있게 불러 동포애의 정을 뜨겁게 해주었으며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우리 민족의 통일기운이 전례없이 높아 지고 있는 시기에 나온 노래 ≪우리는 하나≫는 통일열기로 뜨거운 민족의 가슴마다에 더 큰 활력을 부어 주고 있다.

노래가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할수 없듯이 전 민족이 함께 부르는 통일의 노래없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없다.

오늘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2000년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할 각오를 가지고 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 나서고 있다. 통일의 노래가 있어 조국통일은 먼 장래가 아니라 가까운 앞날에 있다.

노래는 시대의 목소리라는 말이 있다.

노래 ≪우리는 하나≫는 통일열기로 충만된 오늘의 시대의 벅찬 숨결과 7천만 우리 겨레의 통일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내일 계속)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제21회
임종수 선생 - 주체91, 5월 25일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우리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이라는데 대해 학습했습니다. 학습을 통해 알 수 있은 것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빛내여 나가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민대중은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어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경제생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가운데서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이라는데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뿐 아니라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는 그 관리도 인민대중 자신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가 인민대중 자신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 형태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관리라고 할 때 그것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지휘하는 **을 말합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있는 곳에는 경제관리가 있게 됩니다. 봉건사회에는 봉건적 경제관리가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적 경제관리가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주의적 경제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관리 형태들은 그 본질과 성격,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경제관리 형태들 가운데서 어떤 경제관리 형태가 가장 우월한가를 하는 것을 가르는 기준은 우선 해당 경제관리 형태가 누구를 위한 경제관리인가 그리고 그것이 생산자 대중의 창조적 능력을 어느만큼 높이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착취사회, 착취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관리 형태는 우월한 것이 못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경제관리가 그 목적에 있어서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짜내기 위해 근로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경제관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착취계급이 경제관리의 주인인 것으로 해서 인민대중은 생산의 높은 열의를 가지고 참가하지 못하며 결국 생산자 대중의 창조력을 발양시킬 수 없는 경제관리 제도입니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 경제관리는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되었으며 근로자들이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주인으로 됩니다.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리는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적인 주인으로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민대중의 경제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생산과 혁명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경제관리는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하기 때문에 경제관리에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드높이 반영되고 모든 근로자들의 경제관리의 주인답게 참가해서 경제건설에서 자기의 창조적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합니다.

그러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수령님께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사회주의 경제관리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로써 잘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경제관리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가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생산과 혁명활동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 군중노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군중노선 구현하고 있다는 여기에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군중노선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의해 훌륭히 보장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위원회는 집체적 지도기관으로서 여기에는 당일군, 행정일군, 핵심적인 노동자, 기술자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서 대안의 사업체계 본질과 관련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해당 경제관리 형태들은 그 본질에 있어서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은 경제관리의 군중노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 군중노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군중노선 구현하고 있다는 여기에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군중노선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의해 훌륭히 보장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위원회는 집체적 지도기관으로서 여기에는 당일군, 행정일군, 핵심적인 노동자, 기술자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경제관리에서 기본은 군중을 이익을 옹호하고 생산자 대중의 집*적 지위를 경제관리에 옳게 조직동원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가 보장되면 이 문제가 가장 정확히 그리고 훌륭하게 실현됩니다. 그것은 당위원회가 해당분야의 각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론하면 당정책적인 요구가 무엇이고 노동자들의 준비정도, 공장의 설비상태 그리고 자질공급정형은 어떠한가를 비롯해서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해서 올바른 관리대책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위원회가 집체적 지도를 통해 계획화 사업으로부터 노동행정사업, 생산지도, 자재공급 사업을 비롯해서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의 정책적 요구에 생산자 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토의 결정하고 생산사업에서는 주인이 돼서 그것을 집행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철저히 구현되어 모든 경제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고 경제관리에서 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업들에서 일군들이 책임성과 근로자들의 자각적 열의가 높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야 말로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의 주인으로 될 뿐아나라 경제관리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가장 과학적으로 우월한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에서는 사회주의 제도가 세워진 다음 사회주의 경제를 어떻게 관리 운영해야 하는가 하는 사회 경제관리 제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해서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근로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를 기본으로 자본주의적 기업관리 방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과 사람들은 일만하는 소극적인 인간으로 되고 나라의 경제는 일대 혼란이 빠지게 되었으며 종당에는 사회주의를 말아먹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관리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주의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법은 인민대중의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 생산과 경영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을 통해 그 과학성과 정당성이 확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신들을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고 이땅위에 부강한 사회주의 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생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가운데서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노동생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통일역적 이회창을 매장하자

≪반통일역적 이회창을 매장하자≫ 이런 제목으로 유진명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회창의 반통일적 광증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 22일 이회창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라는데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을 폐기해야한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는데요. 이것은 6.15공동선언자체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을 내놓고 반대하는 민족반역행위라 하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이회창의 악담을 두고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통일의 유일한 지름길을 명시한 21세기 통일이정표로써 온 겨레가 적극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동선언발표 2돌을 맞으며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고 온 국민이 통일운동에 적극 나가고 있는 때에 이회창이 감히 6.15공동선언폐기망발을 늘어놓은 것은 우리 민중의 통일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민중은 이회창의 이번 망발을 통해 이자야말로 6.15공동선언과 통일은 안중에도 없는 희세의 반통일역적, 국민의 원수임을 다시 한번 똑바로 알게 됐습니다.

만일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는 지금보다 더 험한 장애가 조성되고 6.15공동선언마저 날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각계 민중들은 이미 지펴 올린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고조시켜 나가야 합니다.

통일운동단체들은 이회창의 이번 망발을 되게 문제시하여 정치쟁점화시켜 이회창을 정치판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층 민중들속에 이회창의 망발이 초래할 악결과를 널리 알려주어 사회적으로 여론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회창이 저질러온 6.15공동선언반대의 죄악상을 이번 망발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폭로단죄하여 반이회창 목소리가 더 크게 터져나오게 해야 합니다.

통일운동단체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통일을 바라는 각계 민중을 이회창의 이번 망발을 계기로 반이회창투쟁에로 더 광범위하게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한총련을 비롯한 청년학생조직들과 모든 운동단체들은 지금 벌이고 있는 이회창 정치활동감시단활동, 이회창바로보기운동, 한나라당대선후보철회, 반이회창투쟁들을 이회창의 이번 망발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투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는 한총련의 ≪보수정치, 6.15방해, 이회창반대 대학생투쟁본부≫를 비롯한 투쟁단체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이회창정서를 급격히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회창의 이번 망발은 우리 민중속에 반이회창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회창은 이번 망발을 통해 제놈이 6.15공동선언과 조국통일은 안중에 없고 미국의 식민지분단체제유지에만 충실한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분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민족반역자 민중의 원수임을 공공연히 선언해 나선 겁니다.

통일운동단체들은 이회창의 이 망발을 끝까지 문제시하고 12월 대선까지 쟁점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여 이회창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숨통을 더욱 바짝 조여내는 것과 동시에 범국민적인 반이회창투쟁으로 민족의 역적 이회창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당면한 6.13지방선거전에서 ****에 광분하는 이회창에게 역전패를 안기는 준엄한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월 대선에서는 이회창을 완전히 매장하는 무덤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4일

미제는 극악한 침략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그 어느때보다 더욱 갈망하고 있는 때에 미국의 부시호전광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반테러전의 무대를 어떻게하나 이 땅에 옮겨놓으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북을 ≪악의 축≫으로, 핵공격의 첫 대상으로 지정한 부시호전세력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이 땅이 다시는 대양 건너 저 미제침략자들의 전쟁터로 되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우리 민족은 어떤 경우에도 미제의 핵전쟁의 희생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제는 극악한 침략자≫ 이런 제목으로 오일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역사는 강도적인 침략과 약탈의 역사이며 피로 얼룩진 학살의 역사입니다. 미제의 침략전략사적 본성과 야수적 정체는 한반도에 대한 침략정책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제는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 땅을 무력으로 강점한 가장 파렴치하고 흉악한 침략자입니다. 미제는 이미 백수십년전부터 한반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우리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갖은 교활하고 음흉한 흉책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던 미제는 일제의 패망을 틈타 이 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했습니다.

미제는 우리 민중들의 민족적 자주권의 가장 흉포한 유린자입니다.

1945년 9월 이 땅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은 미제는 ≪한국≫을 저들의 군사적 점령지대로 선포하고 군정을 실시하면서 모든 권력을 거머쥐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를 저들의 침략적 목적에 철저히 종속시켰습니다.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되었으며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 민족분열의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미제는 ≪한국≫에 기어든 첫날부터 이 땅을 식민지로 만들뿐 아니라 이를 군사전략적 거점으로 하여 전한반도를 침략하며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목적을 추구하였습니다. 미제의 이 침략적 목적은 지난날이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미제야말로 인간의 초보적인 양심과 도덕도 없는 잔인하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야만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민족분열영구화와 새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습니다.

≪한국≫을 강점한 미국의 속셈은 이 땅을 극동과 아시아침략을 위한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중들은 40년간의 일제식민지통치에 이어 57년간의 미제의 강점통치로 말미암아 근 한세기동안 외세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중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재난을 한겨레, 한민족인 이북 민중들에게까지 들씌우려 하였습니다. 지난 20세기 50년대 미국이 감행한 6.25북침전쟁은 그러한 침략정책의 직접적 산물이라 하겠습니다. 미제의 한반도에 대한 백수십년 침략역사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범죄적인 세기를 펼쳐놓은 것이 바로 이 야만적인 침략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북 민중을 굴복시켜 보려고 지금까지 그 어느 전쟁에서도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야수적이고 야수적인 행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어떤 야만적인 전쟁방법과 수단으로써도 이북 민중을 굴복시킬 수 없었으며 영웅적 이북 민중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북침야망을 버리지않고 50년대에 이어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넘어 새 세기에 들어서서도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미제의 북침전쟁을 위한 군사적 도발건수는 휴전협정체결이후 1999년에 이르기까지 총 15만여건에 달하고 ******북침전쟁연습만도 무려 1만여회에 달하며 여기에 동원된 병력은 무려 2000여만명이나 됩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은 오늘에 와서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시행정부는 평화와 완화, 협조에로 나아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반북침략과 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악랄하게 방해하며 한반도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을 ≪악의 축≫이니 뭐니하면서 터무니없이 걸고 드는 부시호전광은 이북을 핵무기사용의 첫 대상으로 지목하고 한반도에서 핵전쟁계획을 실천에 옮기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하순 광란적으로 벌인 사상최대규모의 한미통합합동군사훈련은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통합합동군사훈련은 그 **성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새 전쟁, 핵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입니다.

역사에는 침략자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지만 미제와 같이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남의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우리 이남 민중, 아니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악랄하고 흉포한 침략자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침략적 본성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미제의 ≪한국≫강점과 침략정책은 죄악으로 가득찬 미국의 침략적 역사에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미제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침략자 미제는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침략자 미제를 몰아내기 위한 반미성전에 분기해야 합니다. 반미투쟁을 떠나서는 우리 민중은 오늘의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한국≫땅위에 자주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만큼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통일과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반미투쟁에 과감히 분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군장병들에게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5일

또 하나의 문화적 재부가 마련되었다시며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지난 4월 19일 민중의 문화휴식터로 새로 발굴정리된 송암동굴을 돌아보셨답니다.

이미 민중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진 천하에 다시없을 지하절경 용문대굴에 이어 이번에 새로 발굴정리된 송암동굴은 세계에서 보기드문 희귀한 동굴이랍니다.

오래전부터 용해, 용식작용을 받아 석회암의 석수가 천태만상의 조화를 이루어놓은 천연동굴인 송암동굴에는 수천미터의 원굴과 수십개의 가지굴이 있답니다. 동굴에는 석순과 석화로 형성된 꽃문동, 폭포동, 기암동, 설경동, 백화동을 비롯하여 황홀하고 신비로운 명소들이 무려 70여개소에 펼쳐져 있어서 마치 지하궁전을 방불케하고 있답니다.

웅장함과 화려함,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집약된 기기절묘한 천만가지의 지하절경들을 다 볼 수 있는송암동굴은 정말 희한하다고 그래요.

이날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동굴을 돌아보시면서 발굴정리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답니다. 그러시고 나서 여기 건설자들이 어렵고 방대한 동굴발굴사업을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끝내고 민중의 참관지로 훌륭히 꾸려놓은데 관해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땅속에 숨어있던 송암동굴은 조국의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후대들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발굴에 동원된 건설자들의 온갖 지혜와 정성에 의해서 노동당시대에서 드디어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게 되었답니다.

신기하고 독특한 정취를 안고 있는 송암동굴이 새로 발굴정리됨으로써 이북 민중들이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릴 수 있는 또하나의 귀중한 문화적 재부가 사회주의조국땅에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건설자들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휘황찬란한 부강조국의 내일을 앞당겨올 숭고한 애국의 일념을 안고 투쟁해온데 관해 평가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께서는 이들에 의해 세계에 자랑할만한 또 하나의 문화적 재부가 마련되어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다시며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셨답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우리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 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불패의 노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위대한 창조물들이 수많이 솟아날 수 있었다시며 그들의 자랑찬 위훈을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동굴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찬란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에나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승지들이 많다고 기뻐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이 아름다운 사회주의조국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려가고 있는 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답니다.

이날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자기 나라의 역사와 지리, 문화를 잘 알아야 조국의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알게 되고 애국주의 정신이 나오게 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굴을 보여주어 우리 인민들이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을 가진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민족적 자긍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새로 발굴된 송암동굴은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년대계의 나라의 귀중한 재부라시며 원상 그대로 보존관리하여 참관자들에게 아름답고 현란한 천하절경을 그대로 실감있게 보여주기 위한 철저한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께서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굴을 참관하게 되는 것만큼 동굴을 더 잘 꾸리며 야외휴식장을 비롯한 참관에 필요한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놓아야 한다시며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셨답니다.

이날 송암동굴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건설자들은 민중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장시간에 걸쳐 좁고 가파로운 지하계단길을 오르내리시며 온갖 노고를 다바치신 위대한 영도자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해 고개를 숙였답니다.

지금 이들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따라 주체의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충성의 일념으로 가슴들을 불태우고 있답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0일~21일

일본의 핵무장화책동 어디까지 이르렀나

지금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이 노골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어서 아시아 각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핵무장화책동 어디까지 이르렀나≫ 이런 제목으로 유진명씨 모시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최근 일본반동들이 핵탄두생산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규탄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본의 핵무장화책동 어디까지 이르렀나, 이런 화제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유진명 :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일본 자위당 지도자 오자와 이찌로는 후꾸오까에서 있은 한 강연에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수천개의 핵탄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들에서는 3천내지 4천개의 핵탄두를 제조하는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느니, 만일 이런 가능성을 이용한다면 군사적 위력에서 일본을 당할 자가 없게 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떠들어댔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주변나라들의 군사력증강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사회자 : 오자와의 발언은 반핵정책에 대해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온 일본의 언행이 결국은 세론을 오도하기 위한 한갖 미사여구, 제스추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보는데요.
유진명 : 그렇죠. 일본은 비핵화원칙이 일본의 반핵정책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떠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조금도 꺼려함이 없이 공공연히 핵무장화에 대해 떠들고 있죠. 오자와의 호전적 언행으로 일본은 핵대국화를 꿈꾸는 저들의 정체를 더는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건 세계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위협인 거예요.
사회자 : 그렇습니다. 원래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건 일본지배층이 자나깨나 품고 있는 야망아닙니까. 이로부터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헌법을 외면한채 미국의 비호밑에 재무장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군사대국으로까지 부상했습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서 기본은 핵무장화라고 볼 수 있겠죠.
유진명 : 그렇죠. 일본 지배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것이 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탓이라면서 핵무기를 만능의 무기로 간주하고 그것을 보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33년전에 당시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가져야한다고 공공연히 떠들었고 일본 외무성은 일본이 핵무기제조능력을 보유해야한다는 기밀문서까지 작성했죠. 이로부터 일본은 방대한 기술역량과 자금을 투하해 핵제조기술과 운반수단의 개발을 추진시켜왔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1970년대중엽에 벌써 나이크JR30로켓, 타다, 아트로크, 호크로켓 등 핵운반수단들로 무장했죠. 또한 일본은 우주개발이라는 미명하에 1975년 9월에 7천내지 9천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가진 N1로켓을 쏘아올렸고 1976년에는 N2로켓을, 1981년에는 H1형로켓과 H2형운반로켓을 연이어 개발했어요. 그리고 2001년에는 대형운반로켓 H2A발사시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적제할 수 있는 F-15, F-16 등 최신예 전투기들을 주력지로 배비하고 **사정거리를 가진 공중대 해상미사일 XXM1, XXM22, 공중대 공중미사일 AIM1, 해상대 해상미사일 XXM1 등등을 대량생산하고 있죠. 이에 대해 영국 신문 ≪선데이 타임스≫는 일본은 열가지이상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모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회자 : 그뿐이 아니죠. 일본은 핵무장에 필요한 핵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수많은 플루토늄을 저축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진명 : 옳습니다. 일본은 이미 경수로시대를 넘어 고속 중심로, 신형 전환로, 핵융합로 등 차세대 원자로들을 자력으로 제작해 가동 또는 시험하고 있죠. 일본은 현재 4천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한 외신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들에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약 3만톤이나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400톤의 플루토늄으로 6만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자료와 비교해볼 때 3만톤의 플루토늄으로 얼마만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이건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오늘 일본은 핵무기제조기술과 운반수단개발기술, 플루토늄저축에서 세계 일류급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이 핵대국으로 부상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유진명 : 일본은 임의의 순간에 핵무기를 가지고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어요. 이런데로부터 핵무장과 해외군사작전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거의 모두 제거하고 침략전쟁체계를 갖춰놓기 위해 책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 반동들이 있지도 않는 이북의 그 무슨 미사일위협에 대해 계속 떠들어대는 것도 사실은 저들의 핵무장화를 합리화하고 이북에 대한 핵공격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자 : 제반 사실은 일본 반동들의 핵무장화책동은 극도에 이르렀고 그들의 한반도재침야망은 눈앞에 박두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 국민들은 엄중한 단계에 이른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은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전쟁히스테리의 미치광이 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죠. 세계에서 첫 핵폭탄피해국인 일본이 두번 다시 핵피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거든 핵무장화책동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5일

인권 짓밟는 공권력 앞에 ≪우린 하나≫

수녀 비구니 여성노동자, ≪경찰력 남용 회개하라≫

수녀들에 대한 알몸수색 시도, 비구니 스님 폭행 방관, 여성노동자 알몸수색 등 잇따른 공권력의 여성인권 침해 앞에는 종교도 신분도 따로 없었다.

23일 오후 4시 초여름 햇볕이 뜨거운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은 회색 옷을 입은 100여명 여성들로 가득했다. 하얀 머리쓰개를 쓴 수녀, 밀짚모자를 쓴 비구니, 남색 조끼를 입은 여성노동자들이 뒤섞여 있다. 서로 합장이나 목례로 인사를 하는 이들의 표정은 엄숙함이 서려있었다. 이들이 이 날 공원을 찾은 이유는 나들이나 소풍이 아닌, 공권력에 의한 폭행과 불법 연행감금 항의집회를 하기 위해서였다.

열린시민공원은 바로 지난 5월 14일 32차 반미연대집회 중 수녀 2명을 포함, 19명의 참가자들이 연행되었던 자리.

공원에 세워진 기둥에는 ≪회개! 공권력 남용≫, ≪회복! 여성인권≫이라고 쓰여진 검은 천이 씌워지고 입구에는 미대사관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구역임을 보여주는 밧줄이 설치되었다. ≪대사관 100m 이상 거리에서 하는 집회가 왜 불법이냐≫는 항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참가자들을 연행한 경찰에 대한 항의 표시다.

당시 ≪30회 넘게 진행된 집회인데 이제와서 무슨 불법이냐≫는 질문에 경찰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며 지금까지 봐준 것 뿐≫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4일 집회 당시 알몸수색을 요구받았던 민영미, 최승경 수녀는 증언글을 통해 ≪적어도 신분이 보장된 수도자인 경우에도 도덕적 양심이 통용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경우 그 불안감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짐작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8일 송추 원각사 앞에서 LG건설직원들에게 폭행당한 비구니 법현 스님은 ≪폭행만 당한 거라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현장에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고서도 수수방관한 경찰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다. 목이 메이는지 간간이 말을 멈추던 법현 스님은 ≪힘없는 민중의 아픔을 이제야 느끼는 수행자로서 참회한다≫면서 ≪힘을 모아 다시 정진수행하겠다≫면서 발표를 마쳤다.

알몸으로 수색당한 수치스런 기억이 생생한 한국시그네틱스의 한 여성노동자는 ≪평범한 여성 조합원이어서 순진하게 시키는대로 한 게 억울하다≫고 울부짖었다.

미사 형식으로 진행된 이 날 집회에서 ≪어둠에 싸인 세상을 천주여 비추소서≫라는 ≪시작성가≫로 시작됐고 전종훈 신부는 ≪종교와 도덕과 양심을 폭력으로 끌어내리고 힘으로 밀어붙일 때 그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강론했다.

성가와 함께 봉헌된 상징물은 가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십자가와 억압받는 여성들을 나타낸 그림이었다. 수녀들과 스님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은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천을 밧줄에 묶었다.

이 날 집회에 참가한 단체들은 과잉진압과 불법연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종로경찰서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뒤 ≪광야에서≫를 부르고 해산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천주교남자수도회장상연합회 정의평화환경분과 등 참가단체들은 집회에 앞서 경찰청장과 만나 이러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1주일 정도 답변을 기다린 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과의 면담, 각 천주교 본당에서의 시국기도회 등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월드컵이 끝난 6월 12일 여성계와 종교계, 여성노동계를 참여하는 여성인권문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권박효원 권우성 기자
2002/05/23 오마이뉴스

교수 직원 학생 교육3주체 교육연대투쟁 선언하던 날

교육재정확충 국립대특별법철회 등 한 목소리, 종묘공원서 3백여명 도심집회

대학구성의 3주체라고 불리는 교수 · 직원 · 학생이 자리를 같이한 도심집회에서 국립대발전계획철회와 공교육사수를 촉구하는 등 교육현안에 대한 공동연대투쟁을 선언했다.

≪국립대발전계획철회와 공교육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고흥석)≫ 주최로 열린 대학구성원 총력투쟁결의대회는 25일(토) 늦은 3시부터 종묘공원에서 300여명의 대학구성원들이 모여 ≪교수계약 · 연봉제철회, 교육재정확보, 국립대특별법반대≫ 에 한목소리 내며 현 정권과 교육부를 규탄했다.

고흥석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대학교육의 중요한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하지 말고 차기정권에 넘길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며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립대학발전계획안을 계속 강행한다면 교수 · 직원 · 학생 즉,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며 공교육사수에 관한 입장을 피력했다.

황상익 교수노조위원장은 ≪80년대에는 사회 민주화를 투쟁했으나 지금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대학의 피폐로 대학구성원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산발적인 투쟁이 일어나 썩 잘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대학구성원들이 단결해야한다≫고 연대투쟁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올해 6월 ≪국립대학운영특별법시안≫ 발표로 분주한 김용백 대학노조위원장은 ≪교육부가 국립대특별회계법을 국립대학운영특별법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입법화하려 하고있다≫며 ≪이것이 입법화되면 기성회계 비율의 증가로 등록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하고, ≪만약 입법이 될 때에는 19개 국립대학 대학노조 총파업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고 대학구성원 3주체 교육투쟁의 포문을 열 것이다≫라며 교육부의 국립대운영특별법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학구성원들은 ≪교수계약제 · 연봉제 철폐, 교육재정 GDP 6% 확보, 국립대특별운영법 반대≫와 연대투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막을 내렸다.

특히 ≪교육재정확충≫만이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로 피폐되어 가는 교육을 살릴 수 있다보고 교육부에 맞서 투쟁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집회는 명동성당까지 거리 행진을 한 후 간단한 마무리 집회를 하고 마쳤다.

한편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모든 대학구성원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당초예상과는 다르게 적은 수의 인원이 모인 점, 대학구성원 3주체간의 연대관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2학기 등록금 투쟁, 국립대운영특별법 반대 투쟁, 교수계약제 · 연봉제 철폐 투쟁에서 교수 · 교직원 · 학생이 함께 하는 대학구성원 연대투쟁의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교육투쟁의 귀추가 주목된다.

충주대 박준수 기자
2002/05/25 유뉴스

대학로 달군 노동자들의 함성

5월 26일, 전교조 · 전공련, 민주노총 릴레이 집회

5월 26일 대학로에서는 3만여명의 노동자가 운집한 가운데 전교조, 전공련, 공공연맹, 민주노총의 릴레이 집회가 개최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은 5월 26일 12시 대학로에서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어 하반기 전교조투쟁을 결의하였다.

전교조 이수호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싸움과 우리 동료 조합원들을 확인하며 하반기 싸움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대회사를 시작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우리가 이렇게 싸웠는데도 우리 교육현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 한편 사실일지 모르나 우리 전교조가 없었다면 우리 교육현장의 모습은 더 암울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또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는 우리 교육정책에도 몰려오고 있다≫며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우리가 단결하고 싸우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물결≫이라고 했다.

그는 전교조가 우리 자신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진보와 통일을 위해 힘껏 나가자고 결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백순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땅의 참교육을 위해 애써온 전교조 동지들에게 존경을 드린다≫며 ≪월드컵 기간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4년동안 자행한 노동자에 대한감원, 해고, 구속, 수배 등의 탄압을 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순환 비대위원장은 6 · 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노동자들이 정치세력화 되지 못해 많은 아픔을 당해왔다≫며 ≪누가 이 땅의 진정한 ≪평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보여주자≫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연대를 촉구했다.

전교조 원용만 강원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정부가 월드컵 기간 중에도 교육시장 개방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논의하려 하고 있다≫며 ≪올 6~8월까지 준비해 하반기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내자≫고 주장했다.

오늘 전국교사대회에서는 ≪참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한 공을 기리고 이를 널리 알려 참교육에 기여코자≫ 제정한 참교육상 수상식이 진행되었다.

참교육본상에는 2002년부터 연간 4000여 명이 참가하는 ≪청소년문화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1989년부터 청소년교육 ·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을 전개하고 있는 ≪대구청소년문화센터 ≪우리세상≫≫과 재단법인 ≪교육과 인권≫을 세워 교권확보와 지역의 사학민주화 관련 변론을 전담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전남 목포의 박승옥 변호사가 수상했다.

참교육 특별상에는 1988년 동북부지역 교사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교조활동을 하다가 해직, 복직 후 서울경기국어교사모임 부회장을 맡아 대안교과서 개발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고 성하성 교사(전 서울 상경중 재직 중 2002년 3월 간암으로 운명)과 각종 전횡과 비리를 일삼아온 족벌재단에 맞서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여 부패재단을 퇴진시키는 등 사학 민주화투쟁의 모범을 보인 덕성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수상했다.

박승옥 변호사는 ≪우리 교육과 교사의 하늘은 학생에게 있다≫며 ≪설령 당장의 어려움이 있어도 학생들은 정의화 평화를 이루어낼 주체이므로 그들을 바르게 자라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했다.

참교육 본상을 수상한 박승옥 변호사는 ≪선생님, 사랑합니다≫란 말로 수상소감을 갈무리했다.

전교조는 △계약직 교원의 확대, 교원의 지방직화, 교직개방 등 교육의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고, 교육의 전문성을 짓밟는 교원정책 중단△7차교육과정,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교원 차등성과급 등 시장원리 교육정책 중단 △성취도 평가 확대, 보충수업 전면허용 조치 중단 △정규직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초등학교 교과전담제의 정상적 운영 △사립학교법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 교육의 공공성을 세우는 법제 정비 등을 요구했다.

오늘 전교조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학부모, 교수, 학생, 대학교직원들과의 연대투쟁, GDP 7% 교육재정 확충과 의무교육 확대 등의 ≪교육복지≫ 실현투쟁, 계약제 교원확대 · 교원 지방직화 · 교직개방 등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교원정책 저지를 위한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였다.

신용철 기자
2002/05/26 오마이뉴스

용산미군기지되찾기 콘서트, 열심히 버틴 미국 ≪떠나라≫

≪미국 제품 쓰지 말고, 미국말을 사용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좋은 곳에 미군기지가 생겼다는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26일 오후 2시 이촌 시민공원에서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평화콘서트≫의 부대행사인 사생대회에서 일등을 차지한 심주연(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는 이같은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광기씨의 사회로 열린 이날 평화콘서트는 ≪F-15K Killer 서울대 실천단≫의 최근 유행하고 있는 ≪Fucking U.S.A≫에 맞춘 흥겨운 율동공연으로 시작됐다.

이관복 고문은 여는 말을 통해 ≪일본을 우리 힘으로 물리치지 못해 이 나라가 분단이 됐고, 수도 서울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제 우리 힘으로 서울땅에서, 용산땅에서 미군을 몰아내자≫고 주장했다.

이어 랩그룹 세익스피어의 노래 공연이 있었다. 이들은 솔트 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물의를 일으킨 오노를 주제로 한 노래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용산미군기지 반환이라는 내용이 담긴 노래를 열정적으로 불러 콘서트에 함께 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또 지난 3일 경희대에서 열린 ≪Oh! No~ U.S.A FESTIVAL Concert≫에 출연해 날카로운 사회풍자로 잘 알려진 펑크밴드 ≪TACOPY≫의 노래공연에는 30여명의 대학생들이 무대앞으로 나와 환호를 보내며 ≪TACOPY≫와 호흡을 같이했다.

≪TACOPY≫ 멤버중 김재국씨는 ≪대한미국이라는 노래를 통해 ≪간섭받지 말고 자주성있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을 노래했다≫며 ≪미국이 자기를 보스로 알고 우릴 행동대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성 인 것 같다≫고 비꼬고 ≪아직 미군기지 완전 반환의 확신은 없지만 시간과 공간이 허락하면 이후에도 이런 공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공동대표는 ≪지금은 남북이 평화와 화해로 가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미사일 방어기지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미국을 대리하는 전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용산에서 주한미군기지를 철거하는 문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군기지의 고압선에 의해 사지가 절단 당한 것으로 알려져 전동록씨의 큰아들 전민수도 이 자리에 나와 전동록씨의 현재의 상황을 알렸다. 또 아버지의 중고 오토바이를 판돈인 130만원인데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한 사람을 망쳐놓은 돈이 단돈 60만원이라며 양의 탈을 쓴 늑대인 미국을 ≪우리 모두가 강하게 뭉쳐 이 땅에서 떠나보내자≫고 주장했다.

이어 공연한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는 ≪열심히 버틴 당신 떠나라!≫며 ≪어떻게 된거야≫, ≪또라이 부시≫, ≪경의선 타고≫ 등을 열정적으로 불러 콘서트의 후미를 장식했다.

이날 행사는 평화 콘서트 외에도 용산역에서 이촌 시민공원까지 네티즌들이 중심이 돼 참여 ≪미국이름바꾸기 걷기대회≫가 열려 초등학생부터 70세 노인까지 15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또 ≪부시얼굴 다트 맞추기≫ ≪미국이름 한자 바꾸기≫ ≪퀴즈 맞추면 떡주기≫ ≪주한미군 사행시 짓기≫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콘서트 장소에 마련돼 주변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가족단위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의 참여도 곳곳에서 이뤄져 즐거움을 더했다.

네 살 먹은 손녀딸과 함께 나들이 나온 김무상(56세, 이촌동)씨는 ≪왜 자기들 맘대로 남의 땅을 가지고 있는지 말도 안된다≫며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이번 행사를 두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뛰어난 사행시 짓기 솜씨로 주변 사람들의 눈길을 끈 해태제과 소액주주운동본부 회원 윤복희(42세, 신당동)씨는 지금은 미국제품이 된 해태제과를 한국으로 다시 돌려달라는 의미로 60여명이 회원들이 오늘 걷기대회에도 참여했다며 ≪최근 F-15K 강매도 미국이 식민화시켜가는 과정의 한 예로 볼 수 있다며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미국을 떠나보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잘 되긴 했는데 준비기간이 짧아 주민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며 ≪앞으로 투쟁을 알려내고, 주민들과 운동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알려내기 위해 짧은 기간 준비하게 됐지만 이후에는 좀더 알차게 준비해서 명실공히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평가와 결의를 밝혔다.

한편 국정원과 용산경찰서는 이날 행사가 ≪미국관련 문화제≫라는 이유를 들어 장소 사용을 불허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이런 어려움과 주민참여 저조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가 앞으로 있을 용산미군기지 반환 투쟁을 비롯해 5월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국회비준과 미군 아파트 건립 등의 투쟁을 이슈하는데 그 역할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정미 기자
2002/05/26 통일뉴스

조 · 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1)

(1) 조 · 미 관계의 본질과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

(2)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발휘한 북(조선)의 돌파력

(3)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4)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민족통일기구 수립이 가지는 의의

(5) 민족민주전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1) 조 · 미 관계의 본질과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

조 · 미 관계를 인식하는 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북(조선)을 고립 · 봉쇄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조 · 미 관계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의 고립 · 봉쇄책동이 조 · 미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립 · 봉쇄책동을 중심으로 삼고 조 · 미 관계를 인식하려 할 때, 두 가지 오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른바 ≪폐쇄국가론≫을 용인하는 오류며, 다른 하나는 조 · 미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곧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에 맞서서 반제혁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오류다. 만일 ≪폐쇄국가론≫을 용인하게 되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제국주의세력이 가하는 고립 · 봉쇄의 일방적 공세를 받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제국주의세력의 고립 · 봉쇄 속에 갇혀 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의 정세인식을 패배주의라는 함정으로 끌어간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조 · 미 관계의 본질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의 대결과 투쟁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조선)은 ≪사회주의혁명의 보루≫로 자기의 존재를 지켜왔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을 타파 · 소멸하려는 제국주의세력의 집중공세에 단독으로 맞서 투쟁하여왔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했던 시기에 워싱턴 정가에 나돌았던 이른바 ≪북한 붕괴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새로 출현한 이른바 ≪북한 변화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의 대결과 투쟁이라는 조 · 미 관계의 본질을 은폐하면서 제국주의세력이 압도적인 우세로 사회주의혁명역량을 봉쇄 · 말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날조 · 유포한 ≪제국주의 승리론≫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1) 조 · 미 관계에서 대결의 성격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사상전이라는 사실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상전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와 ≪세계화 전략≫에 기초한 지배주의의 대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대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 전개되었다. 조 · 미 관계의 본질을 바라보는 민족민주전선의 관점은, 조 · 미 대결의 성격을 민족 대 외세의 대결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상전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반외세 민족주의자들의 관점과 다르다.

2) 조 · 미 관계에서 투쟁의 양상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사활적인 투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군사력, 정치외교력, 국가적 조직력, 경제력을 총동원한 투쟁이었다.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집중공세에 맞서서 자기의 존재를 지켜야 했고, 더 나아가서 전세를 역전시켜야 했던 북(조선)은 자기의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반제혁명의 결사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한 긴장된 전투상황 속에서 북(조선)이 하나의 국가로서 수행하는 전략은 반제혁명투쟁에 복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북(조선)이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목적은 반제혁명의 승리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반제혁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북(조선)의 국가전략이 제대로 보이게 되며, 북(조선)의 사회적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조 · 미 관계 10년을 돌이켜 보면, 두 나라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은 세 차례의 중대한 정치적 합의를 통하여 진전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인다. 1993년 6월 11일 뉴욕에서 채택된 조 · 미 공동선언,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조 · 미 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조 · 미 공동성명이 그것이다. 이 정치적 합의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개된 대결과 투쟁이 남긴 결과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실은, 조 · 미 사이에서 이루어진 세 차례의 중대한 정치적 합의는 한결같이 두 나라의 해묵은, 그리고 매우 불안정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기 위한 합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금 조 · 미 관계는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를 이행하여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올해 새로 들어선 부시 정부가 조 · 미 관계를 냉각국면으로 끌어가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조 · 미 관계의 변동방향은 국교 수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궤도에 올라있으며 그 움직임은 비록 전진속도의 증감이라는 차이는 보일 수 있어도 차단할 수 없게 되었다.

(2)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발휘한 북(조선)의 돌파력

지난 1980년대 내내 미국은 북(조선)의 정치협상 제의를 묵살하면서 봉쇄압박과 무력위협으로 대답하였다. 미국은 북(조선)이야말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타파 · 소멸해야 할 적대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한(조선)반도가 지구 위에서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타격지점으로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으며, 한(조선)반도를 가리켜 미국이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태평양의 화약고≫라고 불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조선)반도에서 핵공격의 격발장치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던 쪽은 제국주의세력이었다. 1999년 10월에 세상에 드러난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이 보여준 것처럼, 제국주의세력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나라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방대한 무력과 막강한 첨단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미증유의 전쟁수행력을 과시해왔다. 미국은 이처럼 한(조선)반도에서 전략적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북(조선)이 자기에게 굴복하기를 바랐고 정치협상 제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980년대에 조 · 미 관계가 처해 있었던 정황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어떻게 해서 조 · 미 정치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를 내놓을 수 있었던가?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벌어진 힘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의 일방적인 공세를 물리치고 힘을 겨루는 대등한 지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은 제국주의세력이 자기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못한 무력한 상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치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10년 기간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동안 조 · 미 사이에서 정치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거의 정체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었던 까닭은 그 기간에 사회주의혁명역량의 최대 시련기인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시련기에 처해 있을 때, 제국주의세력은 이미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를 내던지고 종래의 적대 · 말살정책을 다시 꺼내어 휘두르면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을 타파 · 소멸하려고 하였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시련기에 들어서자 제국주의세력이 그 무렵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정치협상을 중단하면서 고립 · 압살책동에 집중하였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세력은 미약한 상대에게는 절대로 정치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는 역사적 경험을 다시 입증하였다.

그렇다면 북(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이 정치협상을 중단하면서 집중시킨 고립 · 압살책동과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를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1) 북(조선)은 군사력으로 돌파하였다. 북(조선)은 1998년 8월 31일에 인공위성체 ≪광명성 1호≫를 탑재한 3단계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를 우주공간을 향해 발사하였다. 그 광경을 지켜본 제국주의세력은 경악하였고 종전처럼 적대 · 말살정책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는 북(조선)이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하여 전쟁수행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엄청난 정치적 위력을 발휘하였다.

북(조선)의 이론에 의하면, 제국주의세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사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한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반제혁명에서 빈약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의 정치외교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1993년 6월에 조 · 미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나 1994년 10월에 조 · 미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이나 2000년 10월에 조 · 미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모두 북(조선)이 미국에 대해서 군사력을 시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993년의 조 · 미 공동선언 채택은 북(조선)이 미국의 태평양지역 전략거점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기에 가능했으며, 1994년의 조 · 미 기본합의서 채택은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과시하였기에 가능했으며, 2000년의 조 · 미 공동선언 채택은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무력위협을 일삼고 있는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려면 자기들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북(조선)

의 생각이었고, 북(조선)은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그 생각을 현실로 이루어냈던 것이다. 제국주의세력과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이 미국의 심장부를 한 방에 날려버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하였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세력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위협 앞에서 제국주의세력은 더 이상 일방적인 공세를 취할 수 없게 되었으며 종래의 적대 · 말살정책을 거두어들이고 정치협상의 길로 끌려나오게 되었다.

북(조선)은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한 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그로써 난관과 역경을 정면돌파하고 제국주의세력과의 대결에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총화하여 군사를 중시하는 사상을 정립하였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대로, 북(조선)은 자기의 사회주의혁명을 선군혁명이라고 부르며, 사회주의정치를 선군정치라고 부른다.

2) 북(조선)은 정치외교력으로 돌파하였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을 상대하여왔던 북(조선)의 정치외교전략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외교전략, 선의에는 선의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처하는 외교전략, 그리고 한(조선)반도 주변 네 나라의 역량관계를 이용하는 외교전략이다.

외세의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외세라는 개념은 북(조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뜻한다. 북(조선)의 외교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성을 근본으로 삼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제전선에서 이탈하여 미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수세에 몰리지 않았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하여 북(조선)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였던 미국의 우회전략을 파탄시킬 수 있었다.

북(조선)은 교활한 제국주의세력이 선의로 위장하고 접근해올 때 방심하거나 속아넘어가지 않았다. 또한 북(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왔을 때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거나 적당히 타협하여 위기를 넘기려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라는 반격구호로 받아치며 초강경으로 대응하였다.

북(조선)은 한(조선)반도 주변 네 나라의 역량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곤 하였다.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장 중시하는 미 · 일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과 중 · 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반미공조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일본이 미 · 일 동맹관계에서 이탈하려는 경향과 중 · 러가 반미공조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은 모두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문제에 결부되어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문제나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는 문제를 좌우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북(조선)이라는 사실이다.

북(조선)이 만일 1998년의 ≪백두산 1호≫에 이어서 ≪백두산 2호≫를 발사하게 되면 일본도 그에 대응하여 중거리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려 할 것이며, 그러한 추세는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확보하려는 군국주의적 야심을 자극할 것이다. 일본이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 · 일 동맹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미국이 미 · 일 동맹관계를 종전대로 원활하게 유지 · 관리하려면 북(조선)이 ≪백두산 2호≫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조 · 미 정치협상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미국이 ≪백두산 2호≫가 발사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2000년 10월에 조명록 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미국이 두려워하는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그 해결책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조 · 미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었고, 그 직후에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대통령의 북(조선) 공식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평양을 찾아갔으며,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실현되는 결정적인 단계에까지 근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시하여야 할 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조 · 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이미 제시하였고, 클린턴 행정부가 그것에 동의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 · 미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 정상이 합의하는 내용을 세상에 발표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클린턴에게 제시하였고 클린턴이 받아들인 획기적인 해결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외부에 알려진 바 없지만, 그 동안 조 · 미 정치협상의 핵심내용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드러난다.

1. 북(조선)이 ≪백두산 2호≫의 발사를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할 우주발사체를 대리발사해주는 책임을 맡는다. 대리발사의 책임이란 미국이 직접 발사해주든지 아니면 제3국이 발사할 때 미국은 자기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조선)은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사업인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광명성≫으로 이름을 붙인 인공위성체는 계속하여 개발하게 될 것이다.

2. 북(조선)은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탄두부에 인공위성체 대신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된다. 그러므로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개발을 중단한다는 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것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말은 조 · 미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추세에 따라 미군병력과 군사장비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가다가 한(조선)반도의 통일이 실현되기 직전에 철군을 완료하고 군사기지를 완전히 폐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조 · 미 두 나라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한다.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말은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전환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 미 국교수립은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 · 말살정책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런데 새로 들어선 부시정부는 선행 클린턴 정부가 북(조선)의 해결책에 동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부산을 떨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북(조선)은 클린턴 정부가 조 · 미 정치협상에서 동의한 것을 부시정부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정치협상을 재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시정부는 북(조선)의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선뜻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조 · 미 관계에 걸려있는 최대의 쟁점이다. 이 쟁점을 해소하는 타결점을 찾게 되면 곧 조 · 미 고위급 정치협상이 열리게 되어 있다.

부시정부가 2000년 10월의 조 · 미 정치협상에서 동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자, 2001년 5월 3일 평양에서 열렸던 조선－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2000년 10월의 조 · 미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백두산 2호≫ 발사에 대한 유예조치를 2003년까지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 유예조치는 미국에게 앞으로 2년 반의 시한부 통첩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조 · 미 두 나라가 정치협상 재개문제를 놓고 벌이고 있는 갈등을 정해진 시한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고 불리해지는 쪽은 미국이다.

3) 북(조선)은 국가적 조직력으로 돌파하였다. 북(조선)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략목표를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대외적으로 강대국들을 상대하여 당당하게 정치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국가 내부의 결집된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북(조선) 내부의 결집된 힘을 그들은 ≪일심단결의 위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1980년대 중반에 그 힘의 원천을 ≪수령 · 당 · 대중이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일심단결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고 밝힌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였다. 북(조선)의 국가적 조직력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련기의 역경 속에서, 국상을 당하여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을 때, 미국과의 전면전을 눈앞에 두고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을 때, 허리띠를 졸매 매고 경제재건에 달라붙었을 때 전인민적 일체감을 보여주었으며 일사불란한 단결을 과시하였다.

(3)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은 주한미군을 철퇴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없으며 국교 수립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만난 2000년 6월의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는 말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친미예속세력이 꾸며낸 헛소문이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의 평화공존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주의혁명역량이 반제전선에서 승리를 쟁취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1999년 9월 ≪페리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조 · 미 사이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말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 그 말은 현대수정주의자들이 한때 떠들었던 제국주의세력과의 ≪평화적 공존, 평화적 경쟁, 평화적 이행≫이라는 반사회주의적 구호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북(조선)에서는 ≪평화적 공존≫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평화보장체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군사적 의미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은 평화적 공존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를 정상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평화적 공존은 북(조선)이 반제혁명노선을 포기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내일 계속)